

# 호암 문일평 저술의 문화사적 의의

이종묵

## I. 머리말

호암(湖巖) 문일평(文一平, 1888-1939)은 1939년 4월 3일 서울의 내자동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호암전집(湖巖全集)』 3권이 조선일보사에서 간행되었다. 『호암전집』 간행위원회에 홍명희(洪命熹), 현상윤(玄相允), 이광수(李光洙), 이병도(李丙燾), 안학(安廓), 이극로(李克魯) 등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망라되었으나 그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또 그의 글을 모은 『호암사화집(湖巖史話集)』도 벗 이원조(李源朝)에 의하여 1939년 인문사에서 간행되었다. 역사학자로, 언론인으로 살아간 그의 길지 않은 삶과 학문이 이렇게 단기간에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그가 이루한 학문적 성과가 당대 사회에서 의미가 녹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하겠다.

그간 문일평에 대한 연구는 목록을 일일이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과가 축적되었다.<sup>1)</sup> 그러나 대부분 그의 생애와 역사 인식을 중심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최기영, 『식민지 시기 민족 자성과 문화 운동』(한울, 2003)의 제2장 「문일평의 생애와 저술」에 그간의 연구사와 함께 문일평의 생애와 저술이 가장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본고는 이에 힘입은 바 크다. 문학 분야에 대한 접근으로는 이동영의 『한국문학연구사』(부산대출판부, 1999)가 있는데 「문일평의 국문학에 관심한 사실」이라는 장을 두어 고찰하였다. 근년의 연구 중에 문화사적인 시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는 류시현, 「1920~30년대 문일평의 민족사와 문화사의 서술」(『민족문화연구』 52, 2010)이 있다. 이 논문에서 민중에게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문화사 연구와 대중적 글쓰기를 시도하였음을 밝혔다. 정출현, 「국학과의 '조선

으로 다루었을 뿐, 구체적인 저술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sup>2)</sup> 문일평의 학문은 역사 연구를 대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순수한 역사학적 관점보다 문학과 예술 등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사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점에서 문일평의 학문에 대한 연구는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일차적으로 문화사적 시각에서 집필한 그의 저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문일평의 저술 활동을 살펴보니, 문일평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1934년의 일기가 발견되어 소개되었으므로,<sup>3)</sup> 이를 중심으로 하면 저술 활동의 구체적 면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일평의 저술 중 그간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문화사적 시각의 성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문일평의 학문적 성과가 21세기 현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한다.

## II. 생애와 저술 활동

문일평은 1888년 5월 15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다. 남평 문씨 그의 집안은 16세기 중엽부터 의주 동북쪽에 있는 압록강 중류 수풀댐 근처의 창성(昌城)에서 세거하면서 대대로 무관(武官)을 배출하였다.<sup>4)</sup> 전형적인 사대부 가문은 아니지만 비교적 경제가 넉넉하였다.

학 논리구성과 그 변모양상』(『열상고전연구』 27집, 2008)은 실학과 조선 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 2) 「대미관계 50년사」나 「고려개사(高麗概史)」 등은 역사학계에서 검토된 바 있다. 안종철, 「1930년대 문일평의 “문화민족주의” 사학의 시대사상: 대외 관계사를 중심으로」(『한국사상사학』, 2010)과 박결순, 「문일평의 고려사 서술과 인식론 - 『高麗概史』를 중심으로」(『충북사학』 11/12, 2000) 등을 들 수 있다.
- 3) 이한수, 「문일평 1934 – 석민지 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 살림, 2008.
- 4) 문일평은 창성을 고향으로 여겼다. 「永畫漫筆」에 수록되어 있는 「나의 고향」에서 昌城을 13대조 아래 세거하던 고향이요 선영이 있고 친척이 있다

기에, 학문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을 없었던 듯하다. 이런 시절 한학(漢學)을 익히다가, 1905년 18세 때 의주에 세워진 기독교회를 통하여 서양의 문화와 학술에 관심을 가졌다. 그 때문에 미국 유학을 꿈꾸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전통적인 한학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본 유학을 통해 배운 서양 학문에 대한 지식이 어우러져 그의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의식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유학에서 만난 이광수가 “한문의 힘도 많고 역사의 지식이 넉넉하여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는 나폴레옹을 찬양하고 비스마르크를 부러워하였다.”<sup>5)</sup>고 한 것이 이러한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 무렵 주로 『태극학보』에 「자유론」, 「한국청년의 위기」 등 계몽적인 글을 쓴 바 있다.

1910년 귀국 후 문일평은 대성학교, 양실학교 등에서 교사를 맡았고 조선광문화, 신간회 등의 사회단체에 관여하였다. 이듬해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얼마 있지 않아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 등에 머물면서 박은식, 신채호, 홍명희, 정인보 등과 독립운동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귀국한 이후에는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1919년 삼일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옥고를 치른 바 있다.

1920년 3월 9일 출소한 후 문일평은 중동학교, 송도고보 등에서 역사 교사를 맡았다. 『동아일보』, 『서울』, 『학생계』 등의 신문과 잡지에 자신이 창작한 한시를 발표하는 한편, 서서히 조선의 역사에 대한 짧은 글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청년』, 『학생계』, 『동명』, 『개벽』 등의 잡지에 「우리 역사 공부」, 「평원왕의 공주」, 「미천왕의 소년시대

---

고 하였다. 朴憲의 〈昌城〉 “연평령 너머가 창성이라, 살기가 하늘에 이어  
지 북과 피리소리 이어지네. 싸움에 패한 병사와 말은 돌아가지 못하여, 끝  
없는 석양 아래 큰 강이 걸쳐 있네(延平嶺外是昌城, 敗氣連犬鼓角鳴, 敗馬  
殘兵歸不得, 夕陽無限大江橫)”라는 시를 인용한 바도 창성에 대한 애정 때  
문이다.

5) 이광수, 「나의 고백」(『이광수전집』 13, 삼중당, 1962), 최기영의 앞책 73  
면에서 재인용하였다.

」, 「조선 과거의 혁명 운동」 등 역사를 풀어서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문일평은 1925년 다시 유학을 떠나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사학과 동양사부에 청강생으로 등록하여 잠시 재학하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경성여상, 배재고보, 중앙고보 등의 교사로 지냈고 잠시 조선일보에도 적을 둔 바 있다. 1926년 8월 12일의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일평은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는 조선사강좌를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1927년 무렵부터 문일평은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였다. 『조선지광』, 『별건곤』, 『한빛』, 『삼천리』, 『조선강단』 등에 조선의 역사를 풀어 쓴 글을 자주 게재하였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영양왕, 온달, 백제의 의자왕, 고려의 강감찬, 최영 등을 위시하여 역대 위인의 짧은 전기를 집필하였다.

『조선일보』를 집필의 장으로 한 문일평의 저술 활동은 1927년부터 본격화된다.<sup>6)</sup> 그해 1월 2일부터 3회에 걸쳐 「정묘호란사(丁卯胡亂史)」를 연재하였고, 이후 1928년 11월 30일부터 21회에 걸쳐 「조선 역사강좌(朝鮮歷史講座)」를 연재하는 등 본격적인 집필 활동에 나섰다. 이보다 앞서 1929년 8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2회에 걸쳐 「역사상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연재하였고<sup>7)</sup> 1930년 1월 29일 「원일(元日)」로 시작하여 「세시고(歲時考)」를 연재하였는데 입춘, 상원, 초파일, 단오, 유두, 칠석, 추석, 중양절, 개천절, 입동과 동지, 제석(除夕)과 납일(曆日) 등을 14회에 걸쳐 다루었다.<sup>8)</sup> 또 11

6) 문일평의 글은 2회에 걸친 「고려의 국가적 이상」(『한빛』, 1928.1, 1928.2)과 3회에 걸친 「조선사에 나타난 국제적 결혼과 정략」(『조선강단』, 1929.9, 1929.10, 1930.1)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글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으니 문일평이 『조선일보』를 저술의 장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7) 이승화의 『朝鮮女俗考』를 인용하여 다소 계몽적인 성격으로 쓴 글이다.

8) 같은 내용이 「朝鮮歲時考」라는 이름으로 『朝鮮通信』에 1930년 2월 19일 3월 6일까지 연재되었는데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문일평은 『태극학보』 21호(1908.5.24.)에 「世界風俗誌 譯述」을 게재한 것으로 보아 풍속에 대한 관심이 이른 시기부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柳得恭의 『京都雜誌』나 洪錫模의 『東國歲時記』 등을 인용하는 등 자료를 두루 동원

월 23일부터 1930년 3월 14일까지 23회에 걸쳐 「예술과 로맨스」를 연재하였다. 1930년 6월 5일부터 25일까지는 9회에 걸쳐 「정치상에 미친 가족주의의 영향」을, 7월 3일부터 24일까지 「연호(年號)와 제호(帝號)의 제(制)」를, 다시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회에 걸쳐 「조선반란사론(朝鮮叛亂史論)」을 연재하였으며 1931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신미년의 사적 고찰」을 3회에 나누어 집필하였다.

문일평의 왕성하던 저술활동은 이 무렵부터 1933년 초까지 2년여 주춤하였다. 1931년 초에 조선일보를 퇴사하고 이듬해 8월까지 중앙고보에 근무하면서, 『신조선』, 『신동아』, 『삼천리』, 『동광』 등의 잡지와 『동아일보』에 몇 편의 글을 기고하였지만 기획에 의한 주제가 아닌 단편적인 글이 대부분이다.<sup>9)</sup>

문일평이 다시 왕성한 집필을 한 것은 1933년 4월 편집고문으로 조선일보에 다시 입사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하나의 연재가 끝난 후의 짧은 휴식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글을 썼다. 1933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역사로 본 조선」을 연재하였는데 이전보다 문화사적인 시각이 더욱 강해졌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쓴 「고문화국(古文化國)의 신시련(新試鍊)」에서는 군자국이나 신선국이 아닌 고문화국을 지향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sup>10)</sup> 이후의 글이 '문명'과 '대중'을 키워드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의 정수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한 예로 「이조 문명의

하였지만, 상식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학구적인 깊이를 갖추지 못하였다.

9) 1931년 2월부터 1933년 4월까지 문화사와 관련한 문일평의 글은 「서동요와 정읍사」(『동광』 1931.7)와 「경복궁」(1931.10), 「고구려의 비너스」(『金剛』 1933.1) 등이 있다. 최기영의 앞책에 밝히지 않은 이 시기의 글은 주로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데 「滿洲와 朝鮮民族 其間의 歷史的關係」(1932.1.2.-3), 「朝鮮近代의 外交」(1932.10.13.-14) 등이 있다.

10) 1면에 '연구'라는 코너를 신설하고 이 글을 실었으나, 조선일보에서 문일평을 그만큼 대우를 한 것이라 하겠다. 이 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재는 2면이나 3면에 게재되었다. 「역사로 본 조선」은 5회부터 「史眼으로 본 조선」으로 타이틀이 바뀌었다.

결정 훈민정음과 대중 문명」에서는 “인문 결정이 훈민정음”이라 하면서 “과거에는 소수인에 의하여 그것을(문명)을 짓게 되고 현재에는 다수인에 의하여 그것을 짓게 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라 하여 훈민정음의 가치를 대중의 문명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또 1933년 7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9회에 걸쳐 연재한 「세계 문화의 선구」에서는,<sup>11)</sup> ‘발명(發明)과 창시(創始)의 위인전기’, ‘세계 문화의 선구 조선 민족이 건설한 문화 세계적 발전의 한 모멘트’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리고 금속활자와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sup>12)</sup>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문일평의 의지가 읽힌다.

이를 이어 문일평은 1933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해(東海)에 놀고 돌아와서」를 연재하였다.<sup>13)</sup> 조선일보 주최로 통천(通川), 장전(長箭), 내금강 말휘리(末輝里), 금성(金城), 철원 등 5개소에 순회강연을 하는 틈에 외금강 일대의 명승을 찾은 감회를 적은 글로, 전통적인 산수유기(山水遊記)의 틀을 따른 것이지만,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는 뜻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명 혹은 문화뿐만 아니라 자연의 우수성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일평은 1933년 10월 13일부터 「사외이문(史外異聞)」의 연재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선의 지보(至寶) 완당선생(阮堂先生)」을 4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그리고 보름 남짓 휴식을 취한 후 문일평은 자신의 가장 방대한 저술 중 하나인 「대미 관계 오십년사」를 7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1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11) 5회부터는 「세계 문화사의 선구」로 타이틀이 바뀌었다.

12) 조선의 금속활자에 대해서는 金瑗根이 「朝鮮鑄字考」라는 이름으로 『동아 일보』에 1931년 10월 24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 것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상세한 논문으로 들 수 있다. 이 무렵 조선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지식인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3) 『호암전집』에는 「東海遊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

문일평은 이 무렵 신문이 발간되지 않는 날이나 어쩌다 사정이 있어 연재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면 거의 매일 글을 썼다. 대략 잡아도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54편의 글을 썼으니 그 열정이 놀랍다. 이 외에도 「갑년(甲年)과 극동 풍운 - 전갑술(前甲戌) 아래 전개된 변국(變局)」(1월 1일, 2일), 「고원의 봄 찾으니 꿈같은 옛 영상」(3월 3일), 「두 번 일성(一星)을 곡합」(8월 14일) 등의 단편적인 글도 썼다. 또 『조선일보』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의 조선」(1월 14일), 「독지가 분발의 추(秋)」(1월 21일) 등 지속적으로 사설을 썼다.<sup>14)</sup> 비록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집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최근 문일평의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1934년 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것으로 탁상용 달력에 한문으로 쓴 것이다.<sup>15)</sup> 이 일기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먼저 일기가 남아 있는 1934년 그의 행적을 보면 조선일보에 출근해서 「사외이문」이나 「화하만필(花下漫筆)」, 「조선의 지보 완당선생」, 「대미 관계 오십년사」 등 연재물을 집필하였다. 연재물은 대개 주당 5회 썼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광고로 신문의 지면이 부족할 때는 집필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 정기적으로 사설을 썼다. 대부분의 글은 늦어도 오전 중에 원고를 넘겨야 하였으므로, 출근 후 바로 집필을 시작하여 한두 시간 안에 완료하였다. 오후에는 대학도서관, 곧 경성제대 도서관에 가서 규장각 소장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을 배껴 쓰는 일을 하였다. 3월 5일 일기의 일부를 예로 보인다.

출근해서 「사외이문」의 「단발령(斷髮令)」을 썼다. 일람각(一覽閣, 六堂의 서재임)에 가서 기일(奇一; James Scarth Gale)의 『조선문화사(朝鮮文化史)』 번역본<sup>16)</sup>을 돌려주었다. 육당(六堂)은 『순무영등록(巡撫營蹕錄)』을 빌려보지 못

14) 후술할 일기에 따른 것이다. 문일평은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사설을 썼는데 가끔 건너뛸 때도 있었다. 『조선일보』에 쓴 사설은 이한수의 『문일평 1934 - 略民지 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의 부록에 실어놓았다.

15) 이한수의 앞 책에 번역과 함께 원문을 실어놓았다.

하는 것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에 갔다. 전에 이어 병자년 한일수약(韓日修約)을 초출(抄出)했다. 약속이 있어 오후 6시 경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정위당(鄭爲堂, 鄭寅曹)을 방문하고 김도원(金道園, 金弘集)의 문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934년의 일기를 통해 볼 때 문일평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일은 7월 15일부터 연재에 들어간 「대미 관계 오십년사」를 집필하는 것이었다. 이 연재를 위하여 문일평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문일평은 이 해 벽두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집필 도중에도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별 일을 없으면 거의 매일 경성제대 도서관에 가서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을 보았다.<sup>17)</sup> 또 일과 중이나 퇴근 이후 김윤식의 『운양일기(雲養日記)』, 박정양의 『죽천고(竹泉稿)』 등 근대사 관련 자료를 배껴 쓰는 일에 몰두하였다.

문일평은 저술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을 늘 한탄하였다. 2월 10일의 일기에서 “매번 도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참고할 길이 없다. 『문헌비고』가 좋지만<sup>18)</sup> 이 역시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아 여러 차례 편집국장에게 구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 대로 집필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sup>19)</sup>

문일평은 대표저술이라 할 만한 「대미 관계 오십년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박정양의 아들 박승철(朴勝喆), 김윤식의 아들 김유문(金裕問), 윤자승(尹滋承)의 손자, 어윤중의 손자 어영선(魚英善) 등을 만

16) Gale의 저술 중에 이 책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奇一所著朝鮮文化史譜’으로 되어 있다.

17) 수집한 자료 중 일부는 「사회이문」 집필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이 자료들은 대부분 가장 학술적 성격이 강한 「대미 관계 오십년사」 집필에 사용되었다.

18) 이 책은 『중보문헌비고』인데, 1916년의 朝鮮研究會古書珍書刊行 사업으로 일환으로 여러 고전과 묶어 출판하였고 또 이를해 朝鮮研究會에서 다시 青柳綱太郎의 編譯으로 별도의 단행본을 간행한 바 있다.

19) 문일평은 1934년 10월 28일의 『조선일보』 사설에서 「자료 수집의 필요」를 집필하였는데 史料特別圖書館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

나거나 찾았다�다. 20세기 전후한 시기 대외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인물의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아들이나 손자를 찾았다던 것이다. 1934년의 일기에 문일평이 구한 사료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수시로 본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은 따로 밝히지 않는다.

姜璋의 文集<sup>20)</sup> : 1월 7일

金允植, 『雲養日記<sup>21)</sup>』: 2월 3일, 2월 5일, 2월 8일, 2월 17일, 3월 14일,

3월 17일, 3월 20일, 3월 25일, 7월 28일

金允植, 『雲養甲乙陰晴史』: 7월 5일

閔泳駿, 『從臣錄<sup>22)</sup>』: 1월 30일

朴定陽, 『竹泉稿』: 1월 26일, 2월 8일

尹起晉, 『大東紀年<sup>23)</sup>』: 2월 6일

金指南, 『通文館志』: 2월 24일

金玉均, 『日記抄<sup>24)</sup>』: 3월 1일

李鍾永, 『日記<sup>25)</sup>』: 3월 3일

20) 강위의 문집 『古歡堂收草』을 가리키는 듯하다. 규장각에 필사본과 新鉛活字本이 전한다. 李光麟 선생이 『姜璋全集』(아세아문화사, 1978)에 붙인 글에서 필사본(古3428-340)이 문일평이 본 책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1) 『雲養日記』는 곧 『天津談草』를 가리키는 듯하다. 문일평의 일기에는 『雲養談草』, 『天津日記』라고도 적었다. 『雲養日記』의 '天津篇'이라 하였으므로 김윤식의 일기 전체일 가능성도 있다.

22) 이한수의 책에는 『從臣錄』이라 옮겨 적었지만 『從宦錄』의 잘못인 듯하다. 규장각 등 고문헌 소장처에 이 이름으로 된 책이 여러 종 전한다. 다만 민영준이 日本公使 부임 일자를 조사하기 위해 본 책이므로 민영준 자신의 저술로 보인다. 민영준의 이 책은 전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름을 閔泳徵로 바꾸었다.

23) 朝鮮 태조 원년부터 高宗 32년까지의 編年史로, 1905년 헐버트가 尹起晉에게 위촉하여 편찬한 책이며, 上海 美華書館에서 간행하였다. 규장각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24) 『甲申日錄』을 가리키는 듯하다.

25) 이현영은 1881년 神土遊覽團으로 일본에 다녀왔고 1886년에도 日本駐副辦事大臣으로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日記』는 이러한 일본 견문을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로 이현영의 저술 중에 '日記'라는 제명의 책은 전하지

- 金弘集, 『道園文草』<sup>26)</sup> : 3월 5일, 3월 20일, 5월 7일  
 金明秀, 『一堂紀事』<sup>27)</sup> : 4월 10일  
 李善始, 『大事記』<sup>28)</sup> : 4월 13일, 10월 18일  
 金錫翼, 『耽羅紀年』<sup>29)</sup> : 4월 17일  
 魚允中, 『從政錄』<sup>30)</sup> : 4월 28일  
 朴珪壽, 『憲齋集』 : 8월 2일  
 巡撫營, 『巡撫營略錄』 : 3월 5일  
 承文院, 『同文彙考』 : 2월 24일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統署日記』<sup>31)</sup> : 9월 28일, 11월 5일  
 저자 미상, 『沁錄』<sup>32)</sup> : 2월 3일, 2월 11일, 2월 19일

문일평이 본 책은 경성제대 도서관 곧 규장각에서 본 것도 있고 후손가에서 빌려 본 것도 있다. 최남선이나 이병도의 집에 가서 열람하거나 빌려 오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두고 담론을 나누기도 하고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가끔 정인보를 만나 사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다 마사토모(多田正知) 등 일본 학자들로부터

않지만,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日本聞見事件草』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에 그의 문집이 전하는데 그 중 『日槎集略』도 이때의 문서와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

- 26) 고려대 도서관에 『金總理遺稿』가 있는데 1937년 鄭寅普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 중 권2-3이 『道園文草』이고, 권4가 『道園奏草』이며, 권6-8이 『日記』이다. 3월 6일 일기에는 『文抄』 6권이고 『日記』는 3책이라 하였다.  
 27) 1927년 이완용과 관련한 내용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서울대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8) 朝鮮 明宗 甲子年(1564)부터 英祖 戊寅年(1758)까지의 중요 사건을 기술한 史書로, 장서각에 31권 31책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문일평의 일기에는 『朝鮮大事記』로 되어 있으며 40권이라 하였다.  
 29) 金錫翼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를 모아 편찬한 책으로 濟洲書館에서 1918년 간행하였다.  
 30) 『從政年表』를 가리키는데 필사본 3책으로 벼를리 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다.  
 31)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를 가리키는데 1883년부터 1895년까지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관광한 일을 적은 일기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32) 이 책의 沁은 강화도를 가리키므로 丙寅洋擾 등 강화도와 관련한 사건을 적은 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터도 사료나 자문을 구하였다.<sup>33)</sup>

문일평이 『승정원일기』 등 사료를 직접 본 것은 중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다. 한 예로 2월 6일 일기에 따르면 경성제대에 가서 『승정원일기』를 보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창설 일자가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조선사강좌(朝鮮史講座)』, 윤기진(尹起晉)의 『대동기년(大東紀年)』, 최남선의 『조선사(朝鮮史)』 등에 잘못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게 된 것을 기뻐한 바 있다.

문일평은 조선의 사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나온 사료와 연구서, 잡지 등을 두루 구하고자 하였다. 근세사 혹은 대미 관계사를 위하여 그가 언급한 일본서 및 서양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信夫淳平, 『近世外交史』; 1월 4일

窪田文三, 『支那外交通史』; 1월 19일

五來欣造의 책<sup>34)</sup>; 1월 31일

廣江澤次郎, 『韓國時代の露西亞活躍史』; 2월 3일

小田省吾, 『朝鮮史講座』; 2월 6일

青柳南冥, 『朝鮮文化史』; 2월 18일

徳富猪一郎, 『世界の變局及年表』<sup>35)</sup>; 3월 23일

吉野作造 等, 『明治文化全集』; 8월 5일

朝鮮總督府鐵道局, 『朝鮮鐵道史』; 3월 24일

青丘學會, 『青丘學叢』(10호/13호); 2월 21일

王芸生, 『日中六十年間外交史』<sup>36)</sup>; 3월 24일

33) 多田正知는 경성제대 예과 교수로 있었는데 「高麗朝漢文學史」, 「南襄及び其一派の文學」, 「宣祖仁祖朝文學の一考察」 등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일제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한국 한시연구』 13집, 2005)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 논문은 이병근 외,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서울대 출판부, 2007)에 다시 실었다.

34) 1934년 이전 저술로는 『儒教の獨逸政治思想に及ぼせる影響』, 『現代の政治』, 『政治思想』 등이 있는데 그 중 『現代の政治』를 가리키는 듯하다.

35) 문일평의 일기에는 편찬자를 밝히지 않고 『世界變局』이라 하였지만 이 책으로 추정하였다.

36) 『日中外交六十年史』로도 표기되었다. 天津에 주문하여 구입하였다는 것

- 德泥(Owen N. Denny), 『清韓論(China and Korea)』<sup>37)</sup>: 1월 7일, 2월 20일  
 山島(William F. Sands), 『極東回想錄(Undiplomatic Memories)』: 1월 9일  
 穆麟德(P.G. von Moellendorff), 『穆麟德傳(P.G. von Moellendorff: ein Lebensbild)』: 1월 17일, 2월 6일, 3월 6일  
 具理皮斯(William Elliot Griffis), 『隱遁王國(Corea : the hermit nation)』: 1월 17일  
 馬堅支(Frederick Arthur McKenzi), 『韓國의 悲劇(The tragedy of Korea)』: 1월 25일, 5월 2일  
 安速(Horace Newton Allen), 『年代表(chronological index)』: 2월 1일  
 安連, 『朝鮮實情(Things Korean : fact and fancy)』: 10월 30일  
 Homer Bezaleel Hulbert, 『朝鮮評論雜誌(Korea Review)』: 2월 15일  
 露國大藏省(農商務省抄譯), 『韓國誌』: 2월 18일  
 Aleksandr Yakovlevich Maximoff(日本 東邦協會譯), 『露國東方策』: 2월 20일,  
 3월 14일  
 奇一(James Scarth Gale), 『朝鮮文化史』: 3월 5일  
 Edward Alexander Powell(竹林熊彥譯), 『九州外交展望(最近歐州外交の展望)』: 4월 18일  
 Harold J. Noble, 『1883年 朝鮮使節 渡美 顛末』(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7월 25일, 8월 23일  
 저자 미상, 『觀樹將軍 回顧錄及外交文書』<sup>38)</sup>: 1월 19일  
 저자 미상, 『威特回憶記』: 4월 18일

문일평은 이들 책 일부를 구입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보았다. 예를 들면 9월 4일 백낙준에게 1883년부터 1887년까지 복구(福久, George C. Foulk) 대리공사의 대한정책에 대한 책을 빌려보았다. 또 10월 2일에는 윤치호(尹致昊)에게 사료 3종을 빌려서 보았다. 11월 8일에는 연희전문 도서관장으로 있던 이묘묵(李卯默)에게도 책을 빌렸다. 특히 이묘묵의 보스턴 대학 박사학위논문은 중요한 참고문헌이었다. 이 논문은 영문으로 되어 있기에 청일 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 대미관계 관련 대목을 번역을 통해

으로 보아 중국 서적으로 보이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37) 이하 영어 서명은 이한수의 앞책에서 가져왔는데 일부는 필자가 따로 추정한 것이다.

38) 서양서로 보이지만 편자 및 서명을 찾지 못하였다.

읽었다. 그런데 11월 14일 일기에 따르면 백낙준이 전화해서 “이묘묵 박사의 논문이 아직 세상에 공표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인용한 부분이 저자의 본뜻과 종종 상반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애석하다.” 라 하였다. 결국 이 자료를 집필에 사용할 수 없어 무척 안타까워하였다. 문일평이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묘묵의 박사논문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서양서의 경우 일본어 번역본이 따로 없을 때에는 여러 사람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영문 잡지도 참고하였는데 주로 연희전문 교수로 있던 백낙준을 통해서 구하였고 또 번역도 부탁하였다. 한미조약 전후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 잡지 『소부이(蕭孚爾)』<sup>39)</sup>를 참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였다.

이와 함께 문일평은 미국에 유학한 조선인을 통해서도 근세 외교사 자료를 구하였고,<sup>40)</sup> 대미 관계를 잘 아는 선배들에게도 자문을 구하였다. 예를 들면 2월 26일에는 19세기 후반 외교 실무를 담당한 이기(李琦)<sup>41)</sup>를 만나 외교 비사를 들었다. 7월 25일에는 백낙준을 찾아가 민영익(閔泳翊)이 미국에 사신 간 기록에 대해 물었고, 8월 21일에는 외부대신(外部大臣)을 지낸 이하영(李夏榮)의 아들 이규원(李圭元)을 만나고자 하였다. 또 9월 1일에는 윤치호를 방문하여 미국 공사 복덕(福德, H. Foote)의 내력을 문의하였고 11월 22일 윤치호에게 가서 역사 이야기를 들었다.

문일평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외이문」과 「대미 관계 오십년사」를 집필하였다. 그리고 이 두 종의

39) “survey”를 옮긴 말로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잡지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0)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梁柱三에게도 영어로 된 자료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그밖에 이력이 자세하지 않은 金麗植, 金戊三 등에게도 미국의 사료를 부탁한 바 있다.

41) 李琦(1857-1935)는 『朝野詩選』을 편찬한 인물이다. 張之淵, 張鴻植 등과 함께 委巷詩選集 『風謠四選』을 계획한 바 있다.

연재 사이에 「화하만필」과 「조선의 지보 완당선생」을 집필하여 연재하였다.

1934년의 일기만 남아 있어 확인할 수 없지만 이후의 저술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935년 벽두에 예년처럼 「조선사상의 을해년」을 실은 것을 필두로 하여 「사상(史上)에 나타난 예술(藝術)의 군상(群像)」(48회), 「불인지반(不忍池畔)의 옛 꿈 양자강변의 봄빛」(6회), 「경성고적소순례(京城古蹟小巡禮)」(10회), 「고건물순례(古建物巡禮)」(18회), 「지상폭포전(紙上瀑布展)」(5회), 「사(史)의 도(都) 강화 시(詩)의 도 강화」(3회), 「근교산악사화(近郊山岳史話)」(28회), 「구거유화(舊居遺話)」(10회) 등 기획에 의한 연재 물을 게재하였다.<sup>42)</sup> 1936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조청간(朝清間)의 삼역전(三役戰)」(10회), 「북국춘신(北國春信)」(5회), 「녹음 만필(綠陰漫筆)」(2회), 「소하만필(銷夏漫筆)」(22회), 「고사습철(故事拾掇)」(10회), 「담배고(考)」(10회), 「차고사(茶故事)」(23회) 등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 역사 자체보다 문화사로 저술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937년 문일평의 저술은 「역사 이야기」(100회), 「율곡 선생 소전」(10회), 「한양조의 정치가 군상」(24회), 「근대명승소열전(近代名僧小列傳)」(11회) 등 역사 자체에 대한 것이 많지만, 「전쟁문학」(23회), 「이조화가지(李朝畫家誌)」(12회) 등 문학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1938년 「이조 문화사의 별항(別項)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의 학풍」(2회), 「문화적 발굴」(20회), 「영주만필(永晝漫筆)」(21회), 「대각국사전(大覺國師傳)」(17회),<sup>43)</sup> 「만추등칙(晚秋登

42) 그 사이 「민속과 오락」, 「고증학상으로 본 정다산」, 「薯童謠와 書童話」, 「正音小史」 등 단편의 글도 여러 편 설었다.

43) 문일평은 불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중요한 승려의 전기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근대명승소열전」 외에도 「사안으로 본 조선」에서 「혜초 전」을 다룬 바 있다. 大谷勝眞의 「慧超往五天竺國傳中の一二に就て」(『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大阪屋號書店, 1934, 경성)을 인용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大覺國師傳」은 義天에 대한 매우 자세한 전기이다. 역사적인 고

陟)」(10회), 「선덕여왕소전(善德女王小傳)」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해인 1939년 「기묘년을 통해본 정치가」(4회), 「동명성 왕전(東明聖王傳)」, 「눌재집독후감(訥齋集讀後感)」 등을 게재하였다.<sup>44)</sup> 그리고 문일평은 마지막 글을 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떴다.<sup>45)</sup>

### III. 문화사적 저술의 내용과 성격

문일평의 저술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주로 하되 문화사적인 시각으로 글을 썼다. 역사를 다루면서도 문학 작품을 적극 인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는 문일평의 저술 중 문화사적인 의미가 큰 것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예술가의 열전

문일평은 예술가의 열전을 작성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

찰과 함께 의천의 시와 중국에서 교유하였던 승려의 시를 두루 인용하였다 는 점에서 문학과 역사를 연결하여 글을 쓰고자 하는 문일평의 기본적인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

44) 문일평은 인물의 전기에 관심이 많았다. 1939년 7월 14일 신간소개 난에 『朝鮮名人傳』이 조선일보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金庠基가 집필한 乙巴素부터 李能和가 집필한 李濟馬까지 조선시대 인물 100인의 전기를 모은 것이다. 여기에 문일평은 平岡公主, 善德女王, 妙青, 梁誠之, 林尚沃, 金正浩 등의 항목을 집필하였다. 김상기, 이병도, 안화, 노정희, 권덕규, 이여성, 홍순혁, 김영수, 고유섭, 황의돈, 이병기, 차상찬, 현상윤, 권상로, 이승규, 조윤제, 최현배, 신석호, 김태준, 이훈구, 이능화, 홍승구, 김원근, 이원조, 이희승, 김윤 등이 편진으로 되어 있다. 국문학 관련 인물은 이병기, 조윤제 등이 집필하였고, 한문학 작가는 이승규가 많이 집필하였다. 『조선명인전』은 1988년 조선일보사에서 『조선명인전 : 한국사에 살아있는 100人의 얼굴』로 다시 간행된 바 있다.

45) 『민족』 21호(2009)에 외손자 이승수가 쓴 수기가 실려 있는데 일제에 의해 독살 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였다. 「예술과 로맨스」, 「사상(史上)에 나타난 예술(藝術)의 군상(群像)」, 「이조화가자(李朝畫家誌)」 등이 그렇게 하여 나온 글이다.

「예술과 로맨스」는 1929년 11월 23일 「파리자고(霍里子高)의 애가(哀歌)와 여옥(麗玉)의 〈공후인(空侯引)〉」으로 연재를 시작하여 처용(處容)의 가무, 〈서동가(薯童歌)〉와 〈정읍사(井邑詞)〉, 〈명주가(溟州歌)〉, 이녕(李寧)의 〈예성강도(禮成江圖)〉, 〈예성강곡(禮成江曲)〉, 공민왕의 예술, 양녕대군(讓寧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풍류, 황진(黃眞) 등을 다루었는데 그해 말까지 도합 23회에 달한다. 음악과 미술, 문학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사랑과 연결하여 다룬었다.<sup>46)</sup>

이 무렵 ‘로맨스’ 시리즈가 신문에 유행하였다. 1929년 9월 24일부터 『동아일보』에 「사상(史上)의 로만스」라는 연재가 시작되었다. 이 광수의 글을 처음 실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이은상(李殷相)의 것인데 이상범(李象範)의 삽화를 넣고 이야기 혹은 소설처럼 기술하였다.<sup>47)</sup> 이 점에서 평이하기는 하지만 학술적인 접근을 한 문일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일평은 시조나 한시 등 문학작품을 자주 인용하고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역사적 사실을 고증할 때에는 『파한집』, 『용재총화』 등 문헌이나 관련 한시를 동원하였다. 〈공후인〉, 〈처용가〉, 〈서동요〉, 〈정읍사〉 등 시가 작품을 인용하여 간단한 작품

46) 조선 초기까지만 다룬 것으로 보아 처음 기획할 때에는 조선시대 전반을 다 다루고자 하였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추정된다.

47) 李光洙는 朴堤上을 5회에 걸쳐 글을 실었다. 李殷相은 1930년 1월 24일부터 5회씩 나누어 成三問, 讓寧大君, 權參奉, 玉璫仙, 李之菡, 鄭生과 紅桃의 罟异, 義賊 朴長脚, 夫娘, 洪次奇, 朴文秀, 金申夫婦傳, 鐵瓠兵, 志鬼, 隋伯과 官昌, 朴信과 紅粧, 李長坤 등을 다루었고, 懷古堂이라는 필명으로 南怡와 妖鬼, 柳居士와 僧, 木川郡守 등을 4월까지 연재하였다. 1936년 6월 14일부터는 趙鏞薰이 「朝鮮詩歌史上의 로만스」를 연재한 것을 보면 이 코너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崔雲娘의 義烈, 太宗歌와 六臣의 時調, 天官의 憎詞, 紅粧의 仙遊, 薯童과 善化公主, 二鄭의 風流, 琉璃王의 黃鳥歌, 忠宣王의 蓮花一朵, 上枝春의 情趣, 放浪詩人 李達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분석까지 시도하였다. 특히 황진을 다룬 곳에서는 여러 수의 시조와 한시를 인용하고 분석하였으며 김택영(金澤榮)의 〈황진전(黃眞傳)〉<sup>48)</sup>을 이용한 것도 서술의 객관성을 높인 것이라 하겠다. 1934년 5월 9일 문일평이 쓴 사설 「조선 문화의 과학적 연구」는 문화의 학술적 접근을 강조하였거나와 당시 신문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고전의 대중화는 경계하였던 듯하다.

「사상에 나타난 예술의 군상」은 「예술과 로맨스」의 후속편이라 할 만하다. 앞에서 살핀 대로 문일평은 1934년 하반기에 「대미 관계 오십년사」 집필에 진력하였고 이듬해 1월 29일부터 새로운 연재에 들어갔다.<sup>49)</sup> 「대미 관계 오십년사」에서처럼 전체를 미리 기획한 후 정해진 차례에 따라 글을 실었다. 첫날 서문에 해당하는 글을 싣고 이어 음악, 회화, 서법, 시가로 나누어 차례로 이듬해 4월 27일까지 52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비록 소략하기는 하지만 문화사와 문학사의 큰 봉우리를 개관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음악에서 여옥(麗玉), 우륵(于勒), 왕산악(王山岳)과 옥보고(玉寶高), 백결선생(百結先生), 박연(朴堧) 등의 인물과 음악을 개괄하였는데 주로 『동국통감(東國通鑑)』이나 『삼국사기』 등의 기록을 동원하였다.<sup>50)</sup> 회화에서 솔거(率居), 담징(曇徵), 이녕(李寧), 공민왕, 안견(安堅), 신사임당(申師任堂), 정선(鄭訟), 김홍도(金弘道) 등을 다루었는데, 『삼국사기』, 『고려사』, 『용재총화』, 『쾌관잡기』, 『연려실기술』 등 역사 자료를 참조하였고 『근역서화정(槿域書畫徵)』도 본 듯하다.<sup>51)</sup> 서법은 김생(金生), 김육진(金陸珍), 탄연(坦然), 홍관(洪灌),

48) 김택영의 『韶濩堂集』에 실린 「名媛傳」을 가리킨다.

49) 『호암전집』에는 「사상에 나타난 예술의 聖職」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50) 후인의 위작인 듯하다고 하면서 元天錫의 『人物叢記』에 실려 있는 백결 선생의 〈琴操〉를 인용한 것이 주목된다. 〈琴操〉는 “天兮縱人，天兮窮頭”으로 시작하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 『인물총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필사본으로 전하는 『話東人物叢記』인 듯하다. 이 책은 “弘谷元天錫總斷” “伏崖范世東編輯”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의 위작으로 추정된다. 전남대출판부에서 1993년 다시 간행한 바 있다.

51) 相良徳三의 『日本美術史』와 關野貞의 『朝鮮美術史』 등 일본의 선행 연구

이암(李嵒), 한수(韓修), 안평대군, 한호(韓濩), 윤순(尹淳), 이광사(李匡師), 김정희(金正喜) 등을 다루었다. 여러 문헌에 전하는 이규보(李奎報), 서거정(徐居正), 성현(成僕), 윤순, 이광사, 홍양호(洪良浩), 김정희 등의 서론(書論)에 대한 글을 직접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가 분야에서는 위홍(魏弘), 응천사(融天師), 치옹(處容), 정서(鄭敍), 황진(黃眞), 정철(鄭澈), 윤선도(尹善道), 박인로(朴仁老), 김천택(金天澤), 김수장(金壽長), 이정보(李鼎輔), 안민영(安玟英) 등 고전시가와 관련한 중요한 작가와 작품을 다루었다.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小樂府)〉도 함께 다루었다. 한문학 분야에서는 최치원(崔致遠), 정지상(鄭知常), 이규보(李奎報), 이제현, 이색(李穡), 권근(權近), 정도전(鄭道傳), 서거정(徐居正), 김종직(金宗直), 박은(朴聞), 이행(李行), 초기 사가(四家, 成僕, 朴祥, 申光漢, 黃廷璣), 김정(金淨), 삼당(三唐, 崔慶昌, 白光動, 李達), 허난설헌(許蘭雪軒), 정사룡(鄭士龍), 노수신(盧守愼), 권필(權譚), 이안눌(李安訥), 차천로(車天輅), 이호민(李好閔), 고문사파(古文辭派, 崔峴, 申欽, 李廷龜, 張維, 李植), 정두경(鄭斗卿), 김상현(金尙憲), 이민구(李敏求), 김창흡(金昌翕), 신유한(申祐翰), 이언진(李彦眞), 박지원(朴趾源), 후가사(後四家,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李書九), 신위(申緯), 이상적(李尚迪), 정지윤(鄭芝潤), 한말사대가(韓末四大家, 李建昌, 姜瑋, 黃玹, 金澤榮), 김윤식(金允植), 유길준(兪吉濬) 등 한문학사의 중요 인물이나 유과를 두루 다루었다.<sup>52)</sup> 각 작가의 대표작을 들었는데 『기아』, 『대

---

도 참조하였다.

52) 문일평에 앞서 신문이나 잡지 등으로 통하여 조선 한문학사의 흐름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1909년 6월 4일 『황성신문』에는 「高句麗詩史」가 실려 있는데 을지문덕, 정법사 등 이른 시기의 한시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있다. 시화는 李昇圭와 金瑗根이 경쟁적으로 연재하였다. 이승규의 「桂屋漫筆」(『조선일보』 1920.12.22.-21.3.18), 김원근의 「朝鮮古今詩話」(『青年』 5월호-7월호, 1922)에서 가볍게 다루어지나가, 이승규의 「東洋詩歌原流-桂山詩話」(『조선일보』 1929.10.2.-?, 54회)와 김원근의 「朝鮮詩史」(『

『동시선』 등의 조선시대의 시선집과 『동인시화』 등의 시화서 등을 두루 참조하였고, 신위의 비평도 자주 참조하였다.

「이조화가지」는 1937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회 연재한 글인데, 안견, 최경(崔涇), 강희안(姜希顏), 신사임당(申師任堂), 김시(金湜), 이경윤(李慶胤), 이정(李楨), 이징(李澄), 조속(趙速), 김명국(金明國), 윤두서(尹斗緒), 조세걸(曹世杰), 조지운(趙之耘), 이명옥(李明郁), 정선, 김홍도, 장승업 등 다양한 화가를 다루었는데, 「사상에 나타난 예술의 군상」에서 다루지 못한 인물을 보완하여 화인 열전(畫人列傳)을 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이 글은 이왕가박물관, 총독부박물관, 개인 소장 등 현존하는 작품을 다루면서 동시에 현전하지 않는 작품은 서거정, 백광훈, 이정귀, 이식 등의 제화시를 통하여 재구하고자 한 점이 돋보인다.

## 2. 꽃의 문화사

문일평의 저술 중 가장 이채로운 것이 「사상(史上)에 나타난 꽃 이 이야기」와 「화하만필」이다. 꽃을 소재로 하되, 다양한 문학 작품을 연결시켜 문화사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사상에 나타난 꽃 이야기」는 『조선일보』 1930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한 글로, 「무궁화와 군자인(君子人)」으로 시작하여, 「모란과 선덕여왕」, 「화왕개와 설총」, 「송화유취(松花幽

---

新生』 1930년-1934, 42회)로 확대되었다. 연구로는 문일평이 자문을 구한 경성제대 예과 교수 多田正知의 「高麗朝漢文學史」(『朝鮮』 181-183호, 1930, 6-8월), 「南衰及び其一派の文學」(『청구학총』 9호, 1932), 「宣祖仁祖朝文學の一考察」(206-207호, 1932) 등이 대표적이다. 安廟의 『朝鮮文學史』(1922), 鄭萬朝의 「朝鮮詩文變遷」(『朝鮮及朝鮮民族』, 1927), 洪熹의 「朝鮮文學源流略論」(『青丘學叢』 3호, 1931) 등 한문으로 된 개관 이외에, 김태준의 『朝鮮漢文學史』(1931)도 비슷한 시기의 성과물이다. 문일평은 이러한 자료를 두루 참고하여 한문학사를 개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한문학 연구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논문에서 밝혔다.

趣)와 재매곡(財買谷), 「척촉화와 수로부인」, 「국화의 전래」, 「작약과 제국공주(帝國公主)」, 「연화와 충선왕」, 「석죽화(石竹花)를 읊은 시인」, 「고운(孤雲)의 촉규시(蜀葵詩)」 등을 다루었다.<sup>53)</sup> 「예술과 로맨스」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한시를 일부 다루기는 하였지만, 특히 이 글에서는 국화와 관련하여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飲酒)〉 등 익히 알려진 작품을 인용한 것을 넘어, 『삼국유사』에 보이는 김유신(金庾信) 딸 재매부인(財買夫人)을 장사지낸 재매곡과 관련하여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를 인용하였으며, 작약을 노래한 한시를 소개하기 위하여 김택영의 〈영작약(詠芍藥)〉을 직접 인용하였다. 최치원의 〈촉규화(蜀葵花)〉, 정습명(鄭襲明)의 〈영석죽(詠石竹)〉 등도 꽃의 특성이나 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용하였다.

이 연재는 해당 화훼의 재배법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꽃을 설명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역사서와 함께 『산림경제(山林經濟)』 등도 자주 참조하였고, 『신농본초(神農本草)』, 왕인유(王仁裕)의 『개원유사(開元遺事)』, 서궁(徐競)의 『고려도경(高麗圖經)』, 유몽(劉蒙)의 『국보(菊譜)』 등의 중국 문헌, 그리고 일본의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까지 동원하였다. 1909년 조선고서간행회에서 펴낸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에 『고려도경』이 포함되어 있고 1914년 조선연구회에서 『산림경제』를 발행하였으며, 『화한삼재도회』는 1906년 일본에서 다시 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문헌을 참조할 수 있었겠지만, 1934년의 일기에서 보듯 규장각 등에서 직접 문헌을 동원하여 직접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화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꽃 품평회가 열렸고, 또 꽃과 관련한 전설을 소개하는 「꽃로맨스」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sup>54)</sup>

53) 같은 내용이 「朝鮮史上の花」라는 이름으로 『朝鮮通信』에 1930년 5월부터 연재되었는데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54) 靑吾生의 「花譜」(『개벽』 68호, 1926.4.1)과 「地上縱覽 朝鮮 各地 꽃 品評會 - 妍妝에 펴는 八道의 꽃 이약이」(『별간곤』 20호, 1929.4.1)가 단적

「꽃로맨스」에서 주로 서양의 전설이 중심이 된 것에 자극을 받은 문일평이 우리 문화사의 일환으로 꽃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일평은 10회의 연재를 마친 후 꽃의 문화사에 대한 종합적인 저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34년 다시 「화하만필」의 집필에 들어갔다.

문일평의 「사외이문」은 1934년 4월 무렵 이미 연재가 종료될 것임이 예견되었다. 문일평의 일기에 따르면 4월 11일 이광수가 「사외이문」에 이어 옛날부터 조선이 무를 숭상한 여러 놀이를 서술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문일평은 그렇게 하겠노라 답하였다. 그러나 이 후 문일평이 이와 관련한 글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던 듯하다. 대신 미진했던 「사상의 꽃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할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하만필」은 1934년 4월 27일 「양모단자술(養牡丹之述)」로 연재가 시작되었다.<sup>55)</sup> 연재 과정에서 듣기 싫은 평가도 받았다. 6월 20일 일기에 따르면 편집국장이 「화하만필」의 “제목이 크게 건너뛰면서 한가하게 늘어지는 것 같으니 좋은 제목을 다시 택하는 것이 어떨까?”라 하였다. 그러나 문일평은 이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글을 썼다. 모란부터 시작하여 국화까지 도합 49회에 걸쳐 연재를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꽃은 모란, 매화, 배꽃, 진달래꽃, 철쭉, 영산홍, 동백꽃, 해당화, 살구꽃, 복사꽃, 장미꽃, 작약, 연꽃, 개나리꽃, 봉선화, 도라지꽃, 할미꽃, 박꽃, 접시꽃, 앵두꽃, 백일홍, 무궁화, 목련, 사계화, 맨드라미, 석류꽃, 능소화, 난초꽃, 제비꽃, 서향화(瑞香花), 치자꽃, 해바라기, 수선화, 옥잠화(玉簪花), 금전화(金錢花), 패

인 에다. 청오생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동아일보』에는 1929년 1929년 4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히아신스, 물망초, 월계(장미), 우미인초, 클로버, 쓴바귀, 백합화 등의 꽃을 대상으로 하여 전설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하였는데 학예부 기자들이 직접 기사를 작성하였고 꽃에 대한 전설을 찾는 광고까지 낸 바 있다.

55) 시험 삼아 3월 31일 「花編」을 썼는데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일기애 보인다.

랭이꽃, 추해당(秋海棠), 매괴화(玫瑰花), 수구화(繡毬花), 원추리꽃, 벚꽃, 양귀비꽃, 국화, 나팔꽃 등 도합 44종이다.<sup>56)</sup>

「화하만필」은 기본적으로 꽃의 생태를 적고 관련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문일평이 참고한 문헌은 상당히 방대하다. 일기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화하만필」을 보면 고문헌 중에는 이인로의 『파한집』, 이제현의 『역옹쾌설』, 강희안의 『양화소록』, 이수광의 『지봉유설』,<sup>57)</sup> 성현의 『용재총화』, 홍만선의 『산림경제』,<sup>58)</sup> 유득공의 『한경지략』,<sup>59)</sup> 서유구의 『금화경독기』와 『임원경제지』, 정약용의 『아언각비』, 성해옹의 『동국명산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의 문헌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 『국조보감』, 『동국여지승람』 등의 관찬서도 참조한 것이 일기에 드러난다. 그뿐 아니라 『산해경(山海經)』, 『본초강목(本草綱目)』, 범성대(范成大)와 유몽의 『국보(菊譜)』, 『증보도주공서(增補陶朱公書)』, 『미공비급(眉公秘笈)』, 『수원시화(隨園詩話)』, 『군방보(群芳譜)』, 『유서찬요(類書纂要)』, 『풍아익(爾雅翼)』 등 다양한 중국 문헌도 인용하였으며,<sup>60)</sup> 「사상의 꽃이야기」에서 든 『화한삼재도회』 등 일본 서목도 여러 차례 참조하였다.

「화하만필」의 가장 큰 특징은 화훼를 문학과 연결하여 화훼의 문화

56) 몇 종의 꽃은 2회에 걸쳐 연재한 것도 있으나 「사상에 나타난 꽃 이야기」와 겹치는 것은 없다.

57) 『지봉유설』은 이병도의 집에서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다. 문일평은 이병도의 집에서 여러 시집을 통하여 화훼와 관련한 시를 찾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5월 18일) 이병도가 소장한 문집류를 두루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화소록』은 이병도의 집에서 빌려 왔다고 되어 있는데 『양화소록』은 지금 규장각에 가람본이 소장되어 있으므로 이 책을 가리키는 듯하다.

58) 문일평은 朴世堂을 편자라 하였지만 홍만선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9) 『漢城識略』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이다.

60) 『유서찬요』는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해동역사』 등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동백을 설명하면서 劉士亨의 시를 인용하였는데 이 역시 『해동역사』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재인용 과정에서 서명을 잘못 표기한 오류도 제법 발견된다.

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한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참고한 것은 이규용(李圭容)의 『증보해동시선(增補海東詩選)』(淮東書館, 1919)인 듯하다. 최치원, 최승로(崔承老), 황보탁(皇甫倬), 이규보, 정습명, 정포(鄭誦), 장일(張鎰), 김구(金塽), 정몽주, 변중량(卞仲良), 이개(李壇), 신숙주, 안평대군, 김시습, 김종직, 신잠(申潛), 양응정(梁應鼎), 권오복(權五福), 이해원(李行遠), 박지원, 유득공, 신위, 황오(黃五), 박규수, 김윤식, 유길준 등 신라부터 구한말까지 다양한 인물의 시를 인용하였고, 또 허난설헌, 신정(申鍾)의 자부(子婦), 죽서(竹西) 박씨(朴氏), 김씨(金氏), 부용(芙蓉), 영산홍(映山紅) 등의 여성 작가와 선탄(禪坦) 등 승려 등의 시도 다채롭게 인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증보해동시선』에 실린 것들이다. 또 문일평의 일기에 따르면 오석룡(吳錫龍)의 『동시정화(東詩精選)』(芸香書樓, 1916)에서도 꽃과 관련한 시를 뽑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기에는 「화하만필」과 관련하여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제현의 『익재집』<sup>61)</sup>, 임제(林悌)의 『화사(花史)』<sup>62)</sup>, 김정희의 『추사집』, 박규수의 『환재집』 등도 열람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 문헌은 문일평이 직접 보고 화체 관련한 시문을 뽑은 것으로 보인다.<sup>63)</sup>

향가, 민요와 동요, 잡가, 창가 등 다양한 노래도 적극 수용하였다. 향가인 수로부인(首露夫人)의 〈현화가(獻花歌)〉를 위시하여 성충(成忠)의 시조 “문노니 저 선사야 관동 풍경 어떻더니…”<sup>64)</sup>, 신흠(申

61) 이규보와 이제현의 문집은 이병도의 집에서 빌린 것으로 되어 있다. 朝鮮古書刊行會에서 『東國李相國集』과 『益齋集』을 간행하였으므로 영인본일 가능성도 있다.

62) 『양화소록』과 함께 『화사』를 이병기의 집에서 빌려 왔다는 기록과 金璵招를 시켜 金誠重의 『화사』를 빌리오게 하였다는 기록도 일기에 보인다.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본 『화사』가 소장되어 있고 林悌의 것이므로 저자를 김성중으로 본 것은 착각인 듯하다. 盧軻의 『화사』도 단국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63) 중국 문인의 작품으로는 陶潛, 白居易, 崔顥, 高駢, 林逋, 蘇軾 등의 것이 보인다.

64) 성충의 시조가 아니라 후대인이 가탁한 것임을 손진태가 고증하였다고

欽)의 “간밤에 비오더니”, 김수장의 “모란은 화중왕이요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연화는 군자요 행화는 소인이라”<sup>65)</sup>, 안민영의 〈도화가(桃花歌)〉 “도화는 무슨 일로 홍장을 지어내서…”, 잡가인 〈매화타령〉, 〈꽃타령〉, 〈신염불가〉, 〈사랑가〉, 〈도라지타령〉, 판소리 〈춘향가〉와 〈수궁가〉, 창가인 〈명사십리 해당화야…〉, 〈울밑에 선 봉선화…〉, 그밖에 당시 유행하던 동요 등을 꽃과 연결하여 인용하였다.

### 3. 실학 연구의 조석

문일평은 「완당선생전(阮堂先生傳)」, 「고증학상(考證學上)으로 본 정다산(丁茶山)」, 「이조문화사의 별항(別項)」 등을 통하여 실학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조선일보』에 1934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김정희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비교적 깊이가 있는 작가론을 집필하였다.<sup>66)</sup>

문일평이 김정희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5월 26일 종현손인 김익환(金翊煥)이 『완당선생전집』을 가지고 와서 출간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정희의 문집은 1867년 전사자(全史字)로 간행한 『담연재시고(覃撲齋詩藁)』와 이듬해 『완당척독(阮堂尺牘)』 등을 보충하여 전사자로 간행한 『완당집(阮堂集)』 등이 있었다. 그 후 김익환 등이 이를 문집을 합하고 홍명희의 교정을 거쳐 1934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완당전집』으로 간행한 바 있다. 이 저본이 되는 원고를 김익환이 문일평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무렵 김정희의 글씨가 세인들의 관심을 끌어 『동아일보』에 사진이 실리기는 하였지만 김정희에 대한 근대적 관심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만하다.

문일평은 이 무렵부터 김정희의 문집을 읽기 시작하였다. 당시 「화

밝혔다.

(65) 제목을 〈花編〉이라 하고 작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여러 시조집에는 김수장의 것으로 되어 있다.

(66) 『문일평전집』에는 「조선의 至寶 阮堂先生」으로 실려 있는데 2회부터 이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만필」을 연재하고 있었기에 김정희의 〈개성으로 가는 길에(松京道中)〉에서 “인삼꽃 피니 온 마을이 향긋하다(人蔘花發一村香)”라는 구절을 들어 인삼꽃이 향기가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과천 집에서(果腐卽事)〉가 이행원(李行遠) 시 자은 것과 일치하는데 누구의 작품인지 알 수 없다고 고민한 것이 이즈음의 일기에 보인다.<sup>67)</sup>

『완당선생전』에서 문일평은 김정희가 서도(書道)로만 이름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의 학문을 논하였다. 문일평은 김정희의 학문을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로 하는 내재적 전통을 이으면서 외부적으로 용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의 고증학과 금석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사구시는 유형원과 이익,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로 이어지는데, 특히 김정희가 박제가를 사사하였음을 밝혔다.<sup>68)</sup> 또 학술을 한당(漢唐)의 훈고학(訓詁學)과 송명(宋明)의 성리학(性理學), 청의 고증학으로 설정한 다음, 고증학의 계보를 고염무(顧炎武), 염악거(閻若璩), 호위(胡渭), 그리고 이를 계승한 용방강과 완원으로 잡고 김정희가 용방강과 완원을 배웠다고 하였다.

문일평은 김정희의 금석학이 내재적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혔다. 김정희의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을 조선 금석학의 전통에서 소개하면서 낭선군(朗善君) 이우(李僕)가 편찬한 『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을 특기하였고, 이우를 이어 김재로와 홍양호가 있었는데 이를 뛰어넘어 김정희가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산비 등 김정희가 고

67) “庭畔桃花泣，胡爲細雨中。主人沈病久，不敢笑春風”라는 시로 『阮堂先生全集』에 실려 있다.

68) 특히 이 글에서는 당시의 실사구시파로 成海應, 申禪, 柳愬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6월 15일의 일기에 따르면 문일평이 이들의 저술을 보게 된 것이 이 무렵인 듯하다. 문일평은 정인보 댁에서 신작의 『詩次故』와 유희의 『文通』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보다 앞선 5월 13일에는 이병도의 집에서 성해옹의 『연경재집』을 열람하였다. 정인보와 이병도로부터 이들의 학문에 대한 설명을 들고 또 이들의 저술을 직접 보았기에 이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증한 비문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그리고 김정희가 ‘경사금석서화시문 도각(經史金石書畫詩文圖刻)’ 등에 두루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한송(漢宋)을 절충한 경학과 한당(漢唐)을 아우른 예술에 근본을 두어 뛰어난 전서(篆書) 풍의 추사체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문일평은 김정희 학문의 또 다른 근원이 불교라는 점도 놓치지 않았다. 금문파(今文派)가 불교와 함께 서양학문까지 수용한 것처럼 김정희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도 박학을 위한 열린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여 불교를 수용하였고 초의(草衣)와도 적극적으로 교유하였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김정희가 청의 문물을 깊이 있게 이해하였거나 일본문화에 대해서도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높게 보았다.

본격적인 김정희의 평전은 문일평에 의하여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지쓰카 지카시(藤塚類)가 문일평에 앞서 김정희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이때까지 본격적인 논문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sup>69)</sup> 이 때문에 문일평이 김정희의 평전을 쓰고자 할 때 문집 외에는 따로 참조할 자료가 없었던 듯하다. 6월 13일의 일기에는 김정희의 평전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책이 없다고 고민을 토로하였다. 어렵게 쓴 것이지만, 김정희에 대한 첫 연구가 일본인이 아닌 문일평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문일평은 이 글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10일 「정다산의 위대한 업적 - 99주년 기일에 즈음하여」라는 사설을 썼다. 그 전날의 일기에 따르면 문일평은 오전 9시 회사에 갈 때 정인보를 방문하여 실학의 대강을 듣고 와서 사설을 썼는데 불과 3시간 만에 끝마칠 수 있었고 이에 자료가 많을수록 속도가 더 빨라짐을 알 수 있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35년 7월 16일 「고증학상으로 본 정다산」을 『조선일보』에 게재하였다.<sup>70)</sup> 이 날은 정약용의

(69) 「阮堂集及び阮堂先生全集に譲入せる清儒の名文」, 「阮堂集譲入文の再検討と清儒阮元・梁章鉅の展望」 등의 논문이 『朝鮮』에 게재된 것은 1938년 5월 이후이다. 역자 『李朝における清朝東漸史』가 완성된 것은 1940년이다.

(70) 같은 내용이 「丁茶山先生-考證學上から見た茶山先生」라는 이름으로 『朝

서거 백주년이 되는 날이라 사설부터 정약용에 대한 것이거니와 아예 2면 전체에 걸쳐 정약용에 대한 글을 특집으로 꾸몄다. 안재홍의 「다산선생의 대경륜」, 이훈구의 「토지 국유론과 권농정책육과(勸農政策六科) - 농정학상(農政學上)으로 본 다산선생」, 김태준의 「문화건설상으로 본 정다산 선생의 업적」, 조현영의 「한의학상으로 본 다산의 학의 특색」 등을 실었다. 여기에 문일평의 글도 함께 실린 것이다.<sup>71)</sup>

실학에 대한 문일평의 관심은 1938년 1월 3일부터 2회로 나뉘어 연재된 「이조문화사의 별향」으로 이어진다. 이 글은 먼저 실사구시파의 학풍을 다루면서 유형원과 이익을 비조로 하여 안정복, 한치윤, 이금익 등을 역사파로, 이중환, 정항령(鄭恒齡)을 지리파로, 신경준, 정동유, 유희를 언어파로 규정하고, 경학파인 정약용이 이를 집대성하였다고 하였다. 『맹자』와 『논어』, 『서경』 등에 대한 정약용의 탁월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돋보인다. 그리고 서양학문의 수용에 적극적인 학자로 정약용과 그 선배 홍대용을 들면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며 그 후학 박제가도 높게 평가하였다.

#### 4. 문화지리학의 선구

문일평의 저술 중 이채로운 것은 최근 유행하는 문화지리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겼다는 점이다. 「경성고적소순례(京城古蹟小巡禮)」, 「고건물순례(古建物巡禮)」, 「근교산악사화(近郊山岳史話)」, 「구거유화(舊居遺話)」, 「지상폭포전(紙上瀑布展)」, 「조선의 명산거찰(名山巨刹)」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저술이 나온 것은 당시 경성의 유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매일신보』(1916년 3월 11-23일, 6회)에는 조중환의 「경성행각」이 실려 있는데 효종의 어의동(於義洞) 잠저, 송시열이 살

『鮮通信』(1935년 8월)에 연재되었는데 일본어로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71) 이훈구, 조현영, 김태준의 글은 2회로 나뉘어 게재되었다. 年譜와 著書總目을 작성하여 실었으며, 필적, 고택과 유택 사진도 실었다.

던 송동(宋洞), 이정귀가 살던 관동(館洞), 광평대군의 집터가 있던 혜화동 등을 다루었다. 또 『동아일보』(1924년 6월 25일-1925년 6월 16일, 50회)에서는 「경성백승」이라는 기획 연재를 마련하고 서울의 명소 100곳을 다루었는데 조선시대 명현의 집터와 관련한 내용이 많다. 『조선일보』에서도 1929년 10월 19일부터 「팔도건축순례」가 57회 연재되었는데 필자는 알 수 없지만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광개토왕비 등의 비석에서부터 궁궐 및 사찰 건축까지 두루 걸쳐 있다. 『별건곤』(1929년 10월호)에서도 비슷한 기획을 하였다. 민병완의 「경성 팔대문과 오대궁문의 유래」, 차상찬의 「경성이 가진 명소와 고적」, 가가승(假家僧)이라는 필자의 「서울의 옛날 집과 지금 집」 등이 그러한 글이다. 특히 「경성이 가진 명소와 고적」에서는 십이궁전(十二宮殿)과 종묘, 문묘 등 조선의 건축물과 함께 육신묘, 관왕묘, 독립문과 훈구단, 장충단, 사직공원 등의 근대 유적 등을 두루 다룬 바 있어 아래 살펴볼 문일평의 글과 유사하다. 「서울의 옛날 집과 지금 집」 역시 문일평의 글과 겹치는 내용이 많다.<sup>72)</sup> 문일평은 이러한 앞선 글을 참조하여 경성의 고적과 건축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연재하였다.

「경성고적소순례」는 1935년 5월 9일부터 10회에 걸쳐 연재한 것으로 숭례문과 홍화문, 오대궁궐(五大宮闕), 육신묘(六臣墓), 세검정(洗劍亭), 정업원(淨業院), 주교(舟橋)와 용봉정(龍鳳亭), 그리고 조선호텔과 단성사가 들어선 곳의 역사 등을 다루었다. 다소 체계 없이 연재된 이 글은 같은 해 7월 6일부터 「고건물순례」로 다시 이어지는 데 총 19회다. 집필 방식은 유사하여 경복궁, 창경궁 등의 궁궐, 종묘, 문묘, 관왕묘, 보신각(普信閣), 금위영(禁衛營) 등의 역사 유적부터 우정국(郵政局), 감고당(感古堂) 등 근대사의 공간까지 두루 다루었으며, 정도전, 민유중, 김홍근(金興根), 이완용 등의 집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72) 이들 자료는 강명관의 『사라진 서울』(푸른역사, 2010)에서 자세히 소개된 바 있어 크게 참조가 된다. 이 책에 문일평의 글은 실지 않았다.

문일평은 이를 이어 1935년 「근교산악사화」와 「구거유화」를 연이어 발표하여 서울과 인근의 문화유적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정리하였다. 여러 문현을 동원하고 또 시문 자료를 인용하여 다채롭게 꾸민 글이다. 「근교산악사화」는 『조선일보』에 1935년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28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등 이른바 서울의 내사산(內四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 것인데 답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여 그 내용이 비교적 풍성하다. 산 자체보다는 산 기슭에 거주한 인물에 대한 야사가 중심에 있다.

인왕산은 사직동 허적(許積)의 구거, 김상용(金尙容)의 태고정(太古亭), 중종의 폐비(廢妃) 신씨(愼氏)의 집 위쪽의 치마바위, 천수경(千壽慶)의 송석원(松石園), 홍파동 권율(權慄)의 구기(舊基), 이항복(李恒福)의 필운대(弼雲臺) 구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sup>73)</sup> 북악산에서는 백악신사(白岳神祠),<sup>74)</sup> 삼청동의 바위글씨,<sup>75)</sup> 백련봉(白蓮峰)

73) 이러한 글은 당시 상황까지 기술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예를 들어 태고정은 金宗漢까지 세가하였는데 당시 일인의 三井會社의 소유가 되어 인부의 숙소가 쓰인다고 하였다. 또 문일평은 尹德榮 집 뒤편에 있는 松石園을 직접 찾아 일대의 풍광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천수경의 삶과 저술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궁궐에 대해서도 적고 있는데 夜照개 대궐이라 불리던 慶熙宮이 경성중학교로 들어갔다고 하고, 광해군 때 세운 慶壽宮은 순화병원 일대에 있으며 慶德宮은 사직 근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문일평의 고증에는 오류도 제법 있다. 광해군 8년(1616) 건립 당시에는 慶德宮이라 하였지만 영조 36년(1760)에 경희궁이라고 개칭하였는데, 문일평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듯하다. 문일평의 기록 중에 신방성이 떨어지는 것도 제법 있다. 천수경의 시라고 한 “有時看白雲, 鎮日對青山”은 천수경의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민간에 전하는 야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현상이 생긴 듯하다. 또 문일평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지 만 사라진 사찰에 대해서도 고증하려고 노력하였다. 한 예로 인왕사는 崔叔精의 「遊仁王寺」를 들어 당시의 모습을 유추하려 하였다.

74) 권필이 「宮柳」 “宮柳青青鶯亂飛”로 인하여 죽음에 이른 일이 白岳神祠의 貞女歸人 영정을 찢은 데서 비롯하였다는 야사를 기록하였다.

75) 『용재총화』를 인용하여 그 풍광을 적은 다음, 성해옹의 『동국산수기』를 인용하여 “三清洞門” 바위글씨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宋時烈의 글씨가 아니라 金數文의 필적이라 고증하였다. 또 성해옹의 글에 보이는 삼청동의

김유근(金道根)의 구기,<sup>76)</sup> 남곤(南袞)의 대은암(大隱巖),<sup>77)</sup> 성수침(成守琛)의 청송당(聽松堂),<sup>78)</sup> 도성 북문인 숙정문(肅靖門), 가회동 북쪽의 취운정(翠雲亭),<sup>79)</sup> 숙빈(淑嬪) 최씨(崔氏)의 영묘(靈廟)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밖에 제일고보 자리에 있던 김옥균의 집, 감고당 앞 서광범(徐光範)의 집, 재동여고 부근 홍영식의 집, 운현궁 앞 박영효의 집도 함께 소개하였다. 그리고 심상훈의 백록동 정자는 미국에서 귀국한 유길준이 유폐되어 있던 곳으로 그 집의 벽지를 뜯어 『서유견문』를 집필하였다는 내용도 보인다.<sup>80)</sup>

남산에서는 봉수대, 청학동(青鶴洞) 이행(李行)의 집터, 회동정씨(會洞鄭氏)의 구기,<sup>81)</sup> 이안눌의 동악시단(東嶽詩壇) 구기,<sup>82)</sup> 유성룡의 묵사동(墨寺洞) 구기,<sup>83)</sup> 조동윤(趙東潤)의 노인정(老人亭),<sup>84)</sup> 이

---

龍溪이 근래 신축한 三角菴 아래 있다고 하였다. “청산리벽계수”로 유명한 碧溪守 이종숙의 삼청동 舊基도 소개하였다.

76) 金道根의 舊基는 일부가 해동은행 金年洙 소유가 되고 일부는 충청도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승 慧澈이 기거하던 雲藏菴에 대해서는 성해옹의 글을 옮긴 것이다. 星祭井 위쪽의 祈天石 바위글씨, 雲龍亭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77) 大隱巖은 벗 朴闡의 시로 인하여 유명해졌다고 하면서 자세히 적었고, 申光漢의 絶句 〈大隱巖〉을 인용하였다.

78) 聽松堂 주변 “聽松堂遺地”, “幽蘭洞” 등의 바위글씨를 소개하고 정선의 『청송당도』에 그려진 모습과 당시의 모습을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79) 翠雲亭 서쪽의 白鹿洞에 있던, 洪英植이 소유하였다가 沈相薰에게로 넘어간 별서에 대해서는 金玉均의 『甲申日錄』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80) “風雪山中夜, 蕭然一榻書。主人梅共笑, 春色在茅廬”라는 유길진의 시를 소개하였는데 최남선은 『동아일보』(1955년 11월 5일)에 이 시를 “눈밭에 재우친 밤 책상 끼고 앉았다가 매화 웃는 낮을 마주보고 웃었으니 어느 덧 샛집 여기는 봄빛 그득한지고.”라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다.

81) 旭町 青木堂 맞은편 저축은행 터에 있던 鄭東浚의 百花堂, 그 위쪽 鄭元容의 舊基를 설명하였다. 半田農林合名會社 자리에 있던 이 집안의 종가는 300칸이 넘는 대지택으로 鄭惟吉의 외손인 金尙憲, 金尙容이 태어난 곳이며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 文杏館이라 하였는데 鄭東愈가 『書永編』을 집필한 곳이며 주인 鄭建朝가 있을 때 姜璣가 함께 공부하였다고 한다.

82) 남산 자락 權擊의 後調堂과 함께 소개하였다. 동악시단은 당시 조계사 소유였다고 한다.

유원의 홍엽정(紅葉亭),<sup>85)</sup> 장충단(獎忠壇),<sup>86)</sup> 〈허생전〉의 무대가 된 묵적동(墨積洞), 이경하(李景夏)의 낙동(駱洞) 구기<sup>87)</sup> 등에 대해 적었다. 낙산은 효종의 잠저인 어의궁의 조양루(朝陽樓)와 그 아래 인평대군의 석양루(夕陽樓),<sup>88)</sup> 고등공업학교 자리인 남이(南怡)의 집터, 신풍한의 신대(申垈) 우물,<sup>89)</sup> 백동(栢洞)의 이화정(梨花亭),<sup>90)</sup> 이심원(李深源)의 일옹정(一翁亭),<sup>91)</sup> 낙산 아래 이완(李浣)의 집터, 장원서(掌苑署) 부근 성삼문(成三問)의 집터<sup>92)</sup> 등을 다루었다.

83) 이순신이 태어난 乾川洞과 함께 남산 아래의 앵정정에 있다고 한다.

84) 오오토리(大鳥奎介) 공사가 5개조 개혁안 가결한 곳으로 후에 총독부 소유로 넘어가 불교부인회에서 사용하였는데 大和町 2정목이라 하였다.

85)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따르면 이유원의 선조 이항복이 이곳에 살면서 두 그루의 檜나무를 심었는데 그 집이 7-8대를 전해 오다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서 雙檜亭이라 불렀다. 대원군이 雙檜亭 편액을 내린 바 있다. 徐念淳이 臺榭를 증축하면서 단풍나무를 많이 심고서 紅葉亭이라고 개칭하였다. 이유원이 선조의 遺址라 여기 다시 구입하여 쌍회정이라고 편액을 내걸었는데 회나무 한 그루는 이미 베어 낸 뒤여서 다시 심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할 때 대원군이 한 명의 秦榆로도 나라를 망쳤는데 상회라 하여 놀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이유원이 회나무를 베고 쌍회정 편액을 없애고 홍엽정이라 이름을 바꾸었을 것이라는 향간의 설은 근거가 없다. 문일평은 『경성부사』를 인용하여 이유원의 호 橘山이 남산의 별칭이라 하였다.

86) 김윤식의 〈十真詩〉를 인용하여 읊미정변에 순사한 洪啓薰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87) 위안스카이의 공관으로 있다가 중국영사관이 되었다고 한다.

88) 이 일대에는 600년 된 은행나무와 400년 된 백송 등이 있는데 당시에 조선경부과 분설이 들어섰다고 한다. 석양루는 南公轍의 『夕陽樓記』를 인용하여 長生殿 부근이라 고증하였다.

89) 동승동 129번지에 있었는데 당시 호남부호 김종익의 소유이며, 紅泉翠壁 글씨가 당시 사라졌다고 하였다. 신풍한의 대표작 「蘸季女夜宿珍山村舍」과 「阻雨信宿神勒寺」도 품평하였다.

90) 신대우물 북쪽으로 강릉 김씨들이 세거하였다고 한다. 申潛의 「醉題梨花亭」을 인용하였다.

91) 金瑗根의 자문을 받아 이화정 가까운 곳이라 하였다. 이심원의 『一翁漫錄』도 소개하였다.

92) 소나무와 함께 '成先生手植松' 라 새긴 석비는 갑오년 이후에 사라지고 李貞憲의 집터가 되었다고 하였다. 개혁당에게 살해당한 尹泰駿의 집터는 姜

「구거유화」는 1935년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한 것인데 특히 김병학(金炳學),<sup>93)</sup> 김병기(金炳冀),<sup>94)</sup> 민영환,<sup>95)</sup> 박규수<sup>96)</sup> 등 명가의 집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7대에 걸쳐 이조판서를 지낸 조대비(趙大妃) 집안의 세거지, 약현대신(藥峴大臣)으로 알려진 김재찬(金載贊)의 집터,<sup>97)</sup> 전동정승(傳洞政丞) 김사목(金思穆)과 조인영(趙寅永)의 집터,<sup>98)</sup> 창동(倉洞) 서씨(徐氏)로 일컬어지는 서종태(徐宗泰), 서명균(徐命均), 서지수(徐志修) 등의 집터<sup>99)</sup> 등도 자세히 다루었다.

이 무렵 문일평은 유적지나 명승지 등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듯하다. 「지상폭포전」은 1935년 8월 11일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 글로 첫 번째 글에서 「조선 제일의 대승폭(大勝瀑)」이라 하여 내설악의 대승폭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sup>100)</sup> 문일평은 스스로 산수유기

起完의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 93) 李珥의 집터가 竹洞宮 인근에 있었는데, 후에 영조의 부마 申光綏가 살았고 고종 연간에 김병학의 소유가 되었다가 당시에는 변호사를 하는 朴勝彬, 金明鑑의 집과 경성조선전기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섰고 관훈동 197번지라 하였다.
- 94) 인근 관훈동 金炳國의 집은 강천자동차상회가 되었고, 김병국의 집 맞은 편 교동에 살던 김병기의 집은 민영휘가 산다고 하였다. 김병기의 부친 金左根의 집이 바로 그 옆으로 당시 閔衡植의 집이 되었다고 한다.
- 95) 공평동 2번지로 당시 大連館이라는 음식점이 들어섰고, 본래가 있던 典洞은 건지동 27-2로 金思元의 사랑이 되었는데 이곳에 민영환이 자결한 후 대나무가 돋았다는 山亭이 있었다고 하였다.
- 96) 재동여고 기숙사가 있던 곳으로 600년 된 백송이 그 사랑채에 있었다고 하였다. 박영효가 김옥균을 이곳에서 만났으며, 유길준이 지은 시를 박규수가 보고 그 재능을 인정하여 일본으로 유학하게 하였다고 적었다.
- 97) 조대비 집안은 재동여고 자리에 있었고 김재찬의 집터는 중림동 대류고 무공장이 되었다고 한다.
- 98) 김사목의 집터는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맞은편 예전 보성학교 자리이며, 그 앞이 조인영의 집이라 하였다. 김사목의 집은 선조인 國舅 金柱臣이 속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집으로 김사목의 고손 金敎獻까지 8대가 살았다고 하였다.
- 99) 蓬萊閣 건너편 언덕이 倉洞인데 종가가 약현에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를 여러 편 지었거니와, 폭포를 다루면서 역대의 중요한 산수유기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다. 문일평은 폭포에 대한 자료로 『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동국명산기』, 『대동여지도』, 『문현비고』, 『대한지지(大韓地誌)』 등의 지리서를 두루 참조하였다. 또 설악산을 중국에 처음 알리고 이를 통하여 조선에서도 설악산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명 양유정(楊維楨)의 「설악산기(雪嶽山記)」를 소개한 것도 주목된다.<sup>101)</sup> 그밖에 지금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다양한 산수유기를 소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 예로 권용정(權用正)이 1829년에 지은 「설악내기(雪嶽內記)」가 대승폭을 묘사한 작품 중 백미라고 높게 평가하였다.<sup>102)</sup>

이를 이어 문일평은 금강산의 구룡폭(九龍瀑), 개성의 박연폭포, 묘향산의 용연(龍淵) 등을 차례로 다루었는데<sup>103)</sup> 전통적인 산수유기

100) 우리나라의 이름난 폭포를 먼저 개관하였는데 삼청동의 龍潭, 세검정 너머 북한산 기슭의 東嶺潭, 도봉산의 曹溪潭, 소요산의 元曉潭 등 지금 확인하기 어려운 근교의 폭포를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일평은 개성의 朴淵瀑布를 최고로 두고 백두산의 飛龍潭도 소개하였으며, 白雲山의 三釜淵潭는 김창흡이 舊居로서 함께 고찰하였다. 이 글은 대승폭을 가장 자세히 다루었는데, 김시습과 김창흡이 이 폭포 때문에 설악산에 거주 하였다고 하였지만 이를 문집에서 大勝瀑이 나오지 않아 그 근거는 알 수 없다. 『대동여지도』에는 대승폭이 보이지 않지만 김정호의 『青邱圖』에는 대승폭이 표기되어 있다.

101) 楊維楨의 글은 「雪嶽山記」가 아니라 「寒溪山記」이다. 「寒溪山記」는 楊維楨의 문집에는 보이지 않고 清 趙吉士의 『寄園寄所寄』에 인용되어 있다. 金壽壻의 「遊曲淵記」에서 이 글의 존재를 처음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글은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하며 같은 글이 장서각본 『와유록』에 『麟蹄志』를 인용하여 수록되어 있는데 역시 내용이 다르지 않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麟蹄志』는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 『與猶堂全書』의 「渝水尋源記」에 大勝潭을 소개하면서 「寒溪山記」를 인용하였는데 『麟蹄志』와 거의 같다. 丁若鏞이 인용한 「寒溪山記」에 대승폭이 등장하므로, 권용정보다 정약용의 글이 먼저 대승폭을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102) 권용정의 문집 『少遊集』이 성균관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고 『少游雜記』는 숙명여대에 소장되어 있다.

103) 「조선 각도의 名瀑들」에서는 지리산 佛日潭, 현라산 天池淵潭과 正方潭,

의 틀을 취하여 여러 사실에 대한 고증도 함께 하였다.<sup>104)</sup> 예를 들면 박연폭포에 새겨진 “비류직하삼천척(飛流直下三千尺)” 바위글씨를 두고 당대 사람들은 황진이의 글씨라 하는데 문일평은 낭선군 이후의 필체라 하였다.<sup>105)</sup> 또 묘향산 상원암(上院庵) 앞개울 상석(床石)에 새겨진 양사언(楊士彦)의 글씨 “용신굴택운무동천(龍神窟宅雲霧洞天)” 을 소개하고, 서산대사가 쓴 “만국 도성이 개미굴 같고, 천가 호사는 초파리와 같도다(萬國都城如蟻垤, 千家豪士若醯鶴)”라는 시를 인용하였다.<sup>106)</sup> 바위글씨를 자세히 다루고 전인의 시를 인용하는 것 자체가 산수유기의 틀을 이용한 것이라 하겠다.<sup>107)</sup>

## 5. 담배와 차의 문화사

문일평은 담배와 차 등 기호품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담배고」는 1936년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연재한 글이다. 서설에 이어 담배의 전래 과정과 명칭, 담배와 관련한 일화 등과 같은 역사적 접근에서부터 담배 무역 등 경제 문제를 함께 다루었다. 『인조실록』, 『계곡만필』, 『지봉유설』, 『심양일기』, 『고운당 필기』, 『사소절』, 『경도잡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우리 문헌에서부터 『하멜표류기』 등 서양 문헌까지 동원하여 고증한 점이 돋보인

---

칠보산의 九龍瀑, 文川의 雲林瀑, 안변의 三防瀑, 계룡산의 凤林洞瀑布, 영동의 深川瀑, 단양의 三仙菴瀑, 함양의 龍湫瀑, 양산의 虹龍瀑, 청도의 藥水瀑, 무등산의 龍湫瀑, 구례의 天壇瀑과 水落瀑, 부안의 直沼瀑布 등을 두루 다루었다.

104) 「나무꾼과 선녀」, 「박진사 설화」 등 구비자료도 활용하고 있다.

105) 문일평은 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李獻慶의 「送白雲翁遊天磨山贈牘」에는 秦妓의 글씨라 하면서 天下女俠의 奇崛한 필체라 높게 평가하였다.

106) 『西厓集』, 『星湖僊說』 등에 이 시가 인용되어 있으므로 조선 중기 이후 널리 애송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07) 「조선의 명산거찰」은 『조광』(1937년 7월)에 게재한 글인데, 짧은 서문을 붙인 다음 李重煥의 『택리지』를 참조하여 조선의 12명산, 4대神山, 3대 사찰 등을 소개하였다.

다. 「담배전매의(專賣議)」에서 구완(具楨)의 『죽수폐언(竹樹弊言)』을 자세히 인용하여<sup>108)</sup> 담배와 술의 전매를 주장한 것은 다른 글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내용이다.

이 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담배예절」과 「담배문예」, 「담배학설」, 「담배공예」 등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담배문예」에서는 담배와 관련한 설화, 국문시가, 한시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발굴하였다. 『지봉유설』을 인용하여 담파고(淡婆姑) 여인의 전설을 소개하고 『임하필기』를 인용하여 기생 담화귀(踏花鬼) 전설을 소개하였으며, 이광사의 〈연초(烟草)〉, 이식의 〈남령초가(南靈草歌)〉<sup>109)</sup> 등의 한시, 〈남초가(南草歎)〉, 〈남령초탄(南靈草歎)〉, 〈담바귀타령〉 등의 국문시가 등을 두루 소개하였다.<sup>110)</sup> 「담배학설」은 흡연의 찬반에 대한 의론을 기록한 것으로 이광사, 박지원, 이유원 등 담배 반대론자의 설을 소개하고 특히 이익의 〈오익십해설(五益十害說)〉, 이덕무의 〈배초십평설(排草十貶說)〉 등을 자세히 인용하였다. 또 『순조실록』을 들어 보문각(寶文閣)에서 있었던 순조와 신하의 담배와 관련한 토론도 자세히 다루었다. 이어지는 「담배공예」에서는 능산(菱山) 김봉회(金鳳會)라는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120구의 오연장편(五言長篇)을 들어 흡연과 관련한 공예품을 다루었다.<sup>111)</sup>

「차고사(茶故事)」도 유사한 체제로 되어 있다. 1936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23회에 걸쳐 연재한 글로, 차의 전래, 역대 차의 종류와 산지, 다구(茶具)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 중국 차와의 비교, 중국인의 우리 차에 대한 품평

108) 구완은 자가 明叔이고 숙종 때의 인물인데 竹樹는 그의 호로 보인다. 『죽수폐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109) 李身達의 작품이라 하였는데 문일평의 오류다.

110) 김종서, 「옛사람들의 담배에 대한 애증」(『문현과해석』 18호, 2002년 봄)에서 담배와 관련한 문학 작품을 소개한 바 있다.

111) 許傳의 〈菱山詩集序〉에 따르면 김봉회는 호가 菱山이고 字가 景元인데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金德遠의 후손이며, 허전의 벗이다. 『菱山詩集』은 전하지 않는다.

등 차 자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차가 활성화되었던 고려시대 차촌(茶村), 다방(茶房) 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또 「담배고」에서처럼 차의 상업화적 재배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선조 때 조선에 온 양호(楊鎬)가 선조에게 차 무역에 대해 진언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임오군란 때 오장경(吳長慶)의 막료로 온 이한신(李瀚臣)<sup>112)</sup>이 차의 재배와 무역을 주장한 〈조선부강팔의(朝鮮富強八議)〉를 직접 인용하고 자세히 다루었다.

문일평은 이 글을 위하여 매우 많은 자료를 동원하였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서 외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제현의 『익재난고』, 김종직의 『점필재집』, 김정희의 『완당전집』, 휴정의 『청허당집(淸虛堂集)』 등의 문집을 위시하여 『보한집』, 『동국여지승람』, 『해동제국기』, 『용재총화』, 『동의보감』, 『성호사설』, 『경도잡지』 등 익히 알려진 문헌뿐만 아니라 『대동연주시격(大東聯珠詩格)』,<sup>113)</sup> 『통도사사적략록(通度寺事蹟略錄)』<sup>114)</sup> 등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책도 참조하였다. 최치원의 〈무염국사비명(無染國師碑銘)〉, 〈진감국사비명(眞鑑國師碑銘)〉 등의 탁본도 인용하였다. 손목(孫穆)의 『계림유사』, 서궁(徐兢)의 『고려도경』,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 등의 문헌과 조맹부(趙孟頫) 등의 한시를 두루 인용하였다. 허차서(許次杼)의 『다소(茶疏)』, 편자 미상의 『다부회고(茶部彙考)』 등 중국 차 전문서와 함께 정약용의 『동다기(東茶記)』와 초의(草衣)의 『동다송(東茶頌)』 등을 자세히 분석한 것이 이채롭다. 아부카이(鮎貝房之進)의 논문까지 인용하였으니,<sup>115)</sup> 당시로서는

112) 石菱 金昌熙에게 전한 글로 서명을 『三籌合存朝鮮富強八議』라 하였다. 그런데 李翰臣은 李延祐와 같은 사람인 듯하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院友譜草』가 그의 저술이다. 규장각에 있는 『東廟迎接錄』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113) 柳希齡의 詩選集인데 지금 일부만 전한다.

114) 원서명이 『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으로 宗遠가 편찬하여 1642년 開刊한 책이다.

115) 「朝鮮に於ける茶に就きて」와 「茶の傳來」 등이 『朝鮮』(205호, 1932)에 실려 있다.

차에 대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로 들 만하다.

## 6. 문학과 역사의 결합

문일평은 역사와 문학을 하나로 연결하여 글을 쓰는 시도를 자주 하였는데 「사외이문(史外異聞)」과 「전쟁문학」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사외이문」은 1933년 10월 13일부터 1934년 4월 24일까지 연재되었었던 글이다.<sup>116)</sup> 대중에게 역사를 알린다는 의식에서 쓴 짧은 글로 학술적인 성격은 약하다. 다만 을지문덕의 〈유수장 우중문(遺隋將于仲文)〉과 정법사(定法師)의 〈영고석(詠孤石)〉이 우리 한시사의 첫출발이라 밝혔고, 꽃과 인품을 연결시켜면서 설종의 〈화왕제(花王戒)〉, 곽예(郭預)의 〈상련(賞蓮)〉 등의 한문학 작품을 인용하였다. 이덕무의 〈소완정동야소집(素玩亭冬夜小集)〉에서 “남국의 솔 벌겋게 달아올라 걸신들린 위를 진정시키네(南國鍋紅胃眞饒)”라 한 구절을 들어 18세기 유행한 난로회(煖爐會)에서 소고기를 철립(鐵笠)에 올려놓고 구워 먹던 풍속이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주석을 들어 일본 통신사에 의하여 일본의 스키야끼가 전래된 것으로 추정한 것도 재미나다.

문학과 역사를 연결시킨 가장 주목할 만한 저술은 「전쟁문학」이다. 문일평은 1937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3회에 걸쳐 이 글을 집필하였다. 전쟁과 관련한 한시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한 글이다. 삼

116) 이후에는 1935년 6월 28일과 30일, 7월 2일 등 세 편의 글이 확인되므로 정식 연재는 이때까지로 보아야 할 듯하다. 문일평의 1934년 4월 25일의 일기에는 「화하만필」을 썼다고 하면서 「사외이문」을 오늘부터 제목을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 최기영의 앞책에는 『사외이문』이 112회 (1933.10.13.-1935.7.2) 연재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호암전집』에는 10+ 회분이 실려 있다. 또 『조선일보』(아카이브)를 확인하면 「史外遺聞」, 「史外異聞」, 「史外見聞」 등 3종의 이름이 보인다. 또 어느 시점에 타이틀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처음 「史外遺聞」이라 하다가 「史外異聞」으로 바꾸었는데 중간에 둘이 혼용되기도 하였다.

국시대 을지문덕의 살수(薩水) 전투, 양만춘(楊萬春)의 안시성(安市城) 전투, 김흠운(金欽運)의 양산(陽山) 전투, 관창(官昌)의 황산(黃山) 전투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 말 흥건적 토벌과 요동 출정에서 종료되었다.

이 글은 관련한 한시를 가장 다채롭게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전쟁 문학'이라는 제목에 값한다. 예를 들어 「살수전과 시」에서는 을지문덕의 〈증수우익위대장군우중문(贈隨右翊衛大將軍于仲文)〉, 조준(趙浚)의 〈안주회고(安州懷古)〉와 이에 차운한 축맹현(祝孟獻)의 시,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 이종휘(李種徽)의 〈살수회고(薩水懷古)〉 등을 두루 소개하였으며 이종휘의 시를 두고는 이백의 〈월중회고(越中懷古)〉와 〈소대회고(蘇臺懷古)〉와 비교를 하기도 하였다. 문일평은 이 글에서 최치원, 김신윤(金莘尹), 이곡(李穀), 이색, 이준오(李存吾), 정몽주, 정추(鄭樞), 이현운(李鉉雲), 이호(李號), 원천석(元天錫), 변계량(卞季良), 이승소(李承召), 서거정, 조위(曹偉), 홍춘경(洪春卿), 김창협(金昌協), 김창흡, 박지원, 정약용, 안정복, 김윤식 등 다양한 작가의 회고시를 인용하였으며, 고려 현종, 명의 사신 기순(祁順)의 시도 끌어들이고 있어, 이 원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선집과 함께 문집을 두루 참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와 함께 김종직, 이익(李漢), 이광사, 이영익(李令翊), 안정복, 김윤식 등 역대 중요한 영사악부(詠史樂府)를 적극 수용하였다는 점이다.<sup>117)</sup> 영사악부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생각할 때 문일평의 박식함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그간 알려져 있지 않은 김윤식의 〈동사운기(東史韻記)〉를 자주 인용하였다. 〈동사운기〉는 『매일신보』에 1935년 9월 무렵부터 1939년 7월 25일까지 총 520회에 걸쳐 연재한 방대한 규모의 영사시(詠史詩)로, 삼국시대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소재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역대의 중요한 전투를 대상으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117) 안정복의 악부시는 〈觀東史有感效樂府體〉를 가리킨다. 이익의 〈해동 악부〉에 누락된 사건을 대상으로 5장으로 노래하였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 7. 한시를 곁들인 수필

문일평은 1936년 여름 「녹음만필(綠陰漫筆)」(1936.5.23-24, 2회), 「영주만필」(1936.6.29.-7.22, 21회), 「소하만필」(1936.8.+30, 22회) 등 세 종의 수필을 연재하였다. 수필이지만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제법 있다. 예를 들면 「영주만필」에서 자신의 애송시로 고병(高駢)의 〈산정하일(山亭夏日)〉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자봉유설』이나 다른 중국 시를 들어 작품의 내용에 대한 고증과 분석을 겸하였다. 박엽(朴燁), 조준(趙浚), 이달(李達), 광해군(光海君), 황현(黃玹), 석희박(石希璞), 정약용 등의 시를 인용하여 화훼나 과일 등에 대한 고증을 하였고 근교의 명승과 관련한 역사를 소개하였다.

도망시(悼亡詩)에 대한 관심도 주목할 만한데 신위와 김정희, 이서우(李瑞雨)의 도망시, 그리고 정상관(鄭象觀)의 〈과부곡(寡婦哭)〉 등을 다루었다. 역대 박연폭포를 다룬 작품에 대한 품평도 주목되는데, 이제현의 〈박연폭포〉, 황진이의 〈박연폭포〉 등을 비판하고, 신위의 작품을 최고로 평가하였으며 김택영의 작품과 임창택(林昌澤)의 〈희작박연빙폭가(戲作朴淵冰瀑歌)〉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밖에 정몽주의 일시(逸詩)를 찾아낸 글,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를 비판한 글, 이규보에 대한 평가 등도 비록 짧은 글이지만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소개한 작품은 대부분 장지연의 『대동시선』에서 확인되는 작품이므로 이즈음 문일평이 『대동시선』을 떠오른 단상을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sup>118)</sup>

「소하만필」 역시 유사한 글이다. 금강산을 노래한 역대의 작품 중

118) 당시 송석원의 풍경을 소개한 글, 금강산이 훼손 실태를 적은 글도 주목된다. 또 당시 서울에 6그만 남은 白松, 그리고 미션나무로 알려져 있는 희귀종 雲木, 그리고 당시 이미 멸종위기에 빠진 딱따구리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에 이상수(李象秀)의 칠언절구 〈금강(金剛)〉이 송시열의 오언절구와 함께 가장 뛰어나다고 품평하였다.<sup>119)</sup> 만월대와 관련한 작품으로는 이양연(李亮淵)의 작품과 유득공의 〈이십일도회고시〉를 고평하였다.<sup>120)</sup> 중국에서 편찬된 『정교송원명시(精校宋元明詩)』에 실려 있는 시무(施武)라는 작가의 작품이 고려 설손(契孫)의 〈산중우(山中雨)〉를 표절한 사실을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sup>121)</sup>

더욱 주목되는 것은 조선의 문학에 대한 문일평의 자부심을 드러낸 글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양계초(梁啓初)가 조선에 인재가 없다고 한 글을 비판하였고 “조선인은 문화인으로 자차한다.”고 하면서 “조선인이 무력 또는 정치방면에 있어서는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으나 문학방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라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의 한시가 중국에 알려진 사례를 소개하여 우리 한시의 우수성을 알리려 하였다. 을지문덕, 정법사, 최치원, 김부식 등 중국의 문현에 실린 시를 들었고, 또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보이는 김상현의 시를 두고 쓴 왕사정(王士禎)의 〈논시절구(論詩絕句)〉 “과연 동국해성시(果然東國解聲詩)”를 소개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sup>122)</sup> “한시를 예술로 본다면 조각 회화 건축 같은 예술에 퇴보된 조선인이 겨우 그 찬명을 한시구에 부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한시구조차 아주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말 가련한 일이다.”라 개탄하면서 한시

119) 이상수의 시는 “峰驚拔地爭相脫, 石怒騰空盡欲飛”를 들었다. 송시열의 시 “雲與山俱白, 雲山不辨容. 雲歸山獨立, 一萬二千峰”은 시화에 등장하지만 정작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120) 이 글에서 문일평은 박지원, 박제가, 김정희 등의 북학파에 대해 적은 다음 세종 때 일본의 시설을 채용하자고 주장한朴瑞生의 南學派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였다.

121) 明 李培의 문집 『水西全集』에는 설손의 작품과 동일한 “一夜山中雨, 風吹屋上茅. 不知溪水長, 犹覺釣船高.”가 실려 있다. 중국 문인들이 조선 시를 가져다 자신의 시로 삼은 예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2) 김상현의 시가 중국에 알려진 경위와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의 「17-18세기 중국에 전해진 조선의 한시」(『한국문화』 45, 2009)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가 이룩한 성과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문일평은 우리 한시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거니와 당시 출간된 중국과 일본의 한시 선집도 두루 읽었으며 여기에 실린 우리 한시에도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앞서 든 『정교송원명시』에 신종호(申從濩)의 〈상춘(傷春)〉과 정지승(鄭之升)의 〈유별(留別)〉이 실려 있음을 밝혔다. 또 일본에서 그 무렵 간행된 『한시대강좌(漢詩大講座)』를 소개하면서 편자 고쿠부 세이가이(國分青崖)의 식견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그의 편협함을 비판하였다. 명 왕광양(汪廣洋)의 〈소계정(蘇溪亭)〉을 분석할 때 유사한 표현을 남긴 다양한 시와 비교하였는데 신종호의 〈상춘〉을 직접 인용하면서도 신종호를 명인(明人)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한시도 예술이라 예술에도 차별을 보는가?”라고 비꼬았다.

「만추동척」은 조선일보(1938.11.10.-1939.1.25.)에 연재된 10회의 글인데 강화, 송도, 한양, 소요산(逍遙山), 박연폭포, 고려자기, 자하문(紫霞門) 등에 대한 산수유기이다. 여기에는 문일평 자신의 한시를 수록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사찰, 관련한 전설, 야사를 동원하여 고증까지 더하였다.

#### IV. 저술의 현대적 의의 - 결론을 대신하여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일평의 저술만큼 독서대중의 사랑을 받은 예는 찾기가 어렵다. 『호암전집』과 『호암사화집』은 해방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sup>123)</sup> 1945년 『한미오십년사(韓米五十

123) 『호암전집』은 조광사에서 1940년 다시 발행되었는데 1945년, 1946, 1947년에 같은 곳에서 발행한 관본도 여러 곳에 전한다. 또 1948년 一成堂書店에서도 다시 간행된 바 있다. 그 후 1978년 삼문사에서 조광사의 재판본을 영인하여 간행하면서 『湖巖史話集』을 『朝鮮史話』로 바꾸어 포함하고 새로운 일부의 자료를 보태어 4책의 전집을 간행하였으며, 1995년 최기영 교수가 더욱 많은 자료를 찾아 『호암 문일평 전집』(민속원, 1995)을 간행하였다. 『호암사화집』도 그 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1939년 대동

年史), 1946년 『조선문화예술(朝鮮文化藝術)』과 『사외이문비화(史外異聞秘話)』처럼 『호암전집』의 일부가 단행본으로 따로 유통된 바도 있다. 비슷한 시기 조광사에서 『상식조선역사(常識朝鮮歷史)』 : 소년역사독본개제(少年歷史讀本改題)』을 발행하였고 1947년 연학사에서도 『소년역사독본(少年歷史讀本)』을 내었다. 그리고 1949년 정유사에서 『조선인물지(朝鮮人物志)』가 나왔다. 1953년에는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호암사화집』의 발췌한 『사화백제(史話百題)』가 나왔다. 그의 저술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그의 저술 중 일부는 근래에 다시 출판되어 학자뿐만 아니라 독서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1969년 한국 문화에 대한 글을 모은 『한국의 문화』가 을유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왔으며, 1972년 삼성문화재단에서 『화하만필(花下滿筆)』이 나왔고, 1974년 「근교산악사화」 등을 묶은 『한국의 산수』가 신구문화사에서 발행되었다. 또 1975년에는 이기백이 사론(史論)을 뽑아 엮은 『호암사론선(湖岩史論選)』과 이 광린이 『호암전집』에 실린 『한미오십년사』를 교주한 책이 탐구당에서 나왔다. 또 신구문화사에서 1976년 『사외이문』, 1977년 동서문화사에서 『한국과 한국인』 등의 단행본이 발행되었다.<sup>124)</sup> 1978년 삼문사에서 『호암전집』 4권이 다시 나온 것까지 감안하면, 1970대 중후반 그의 저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하겠다.

그 후에도 꾸준히 그의 저술들을 읽기 편하게 고친 책들이 발간되었으며 독서층도 다양해졌다. 『한국과 한국인』(중앙, 1982 ; 문공사, 1982 ; 일신서적공사, 1986), 정해림이 편역한 『호암사론사화선집(湖岩史論史話選集)』(현대실학사, 1996), 박광순이 엮은 『이야기 한국사』(범우사, 1989), 『소년 한국 역사』(교학사, 1993) 등 다양한 책이

출판사, 1945년 青丘社, 1948년 金龍圖書, 1945년 青丘社, 1949년 敎文社에서 발행한 판본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간행될 만큼 이 책의 인기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4) 이러한 책 중에는 재쇄본이 여러 종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먼저 나온 판본을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보인다.

20세기에 들어서도 문일평의 저술은 인기가 있어 계속 출간되었다. 『호암전집』에 실려 있는 「사상에 나타난 예술의 성직」과 「예술과 로맨스」, 「조선 화가지」, 「완당선생전」 등을 모은 『예술의 성직 : 역사 를 빛낸 우리 예술가들』(열화당, 2001),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사상에 나타난 꽃 이야기」와 「화하만필」을 정리한 정민의 『꽃밭 속의 생각』(태학사, 2005)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문일평의 저술이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은 이유는 대중적 글쓰기를 지향하였다는 문체적 특징과 함께,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상당수 저술이 우리 문화사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하나 다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화하만필」 등은 꽃의 문화사요, 「담배고」는 담배의 문화사요, 「차고사」사는 차의 문화사요, 또 「근교산악사화」 등은 공간의 문화사라 할 만하다. 1930년대 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최근의 신문과는 달리 역사 자체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문화에 대한 사화(史話)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문일평의 저술이 당시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다른 한편 문일평의 문화사적 시각의 저술은 최근 문학 연구의 흐름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국한문학 연구는 그 출발단계에서부터 순문학적인 것만을 고집하지 않아 사상사, 사회사, 예술사 등을 포괄하는 통합 학문적 성격이 강하였거니와 특히 최근에는 문학의 범위를 넘어서 타전공 영역의 본령에 해당하는 연구 성과까지 도출하고 있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근대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민족이나 근대와 같은 거대담론이 축소되고 그 자리에 생활 혹은 일상이 자리하는 한편, 문화론적인 접근이 크게 유행하면서 한문학 연구 역시 문화론적인 연구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물질(material)'을 키워드로 하는 문화론적 연구 방법에 의하여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건축, 조경, 여행, 서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sup>125)</sup> 이와 함께 학자를 위한 내부적인 연구서를 지양하고 일반대중을 독자층으로 끌어들이는 학문과 교양을 겸하는 저술

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이 바로 문일평의 저술과 최근의 한국학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자의 『조선의 문화공간』(휴머니스트, 2006)은 조선시대 중요한 문화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시문을 함께 다루었다는 점에서 「근교산악사화」나 「구거유화」 등을 더욱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민의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김영사, 2011)는 「차고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책은 거의 최초라 할 만한 우리나라 차의 문화사를 정리한 것으로, 「차고사」에서 보지 못한 자료를 두루 확충하여 학술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리 쉽지 않은 정보를 일반인도 충분히 볼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문일평의 저술과 닮아 있다. 안대희의 『연경, 담배의 모든 것』(휴머니스트, 2008)는 이옥의 『연경(煙經)』을 번역한 것인데 문일평이 미처 참고하지 못하였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닮은 데가 있다. 『연경』을 현대적인 글쓰기로 바꾸면 문일평의 「담배고」와 흡사한 구조가 된다. 또 필자의 『양화소록 -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아카넷, 2012)는 강희안의 『양화소록』을 바탕으로 하면서 화훼의 문화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시문을 풍부하게 벌굴하여 함께 다루었다. 비교적 소략한 「화하만필」의 확대판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문일평의 저술과 최근 한국학 연구의 성과가 닮은 데가 많다. 그리고 보면 「예술과 로맨스」나 「사상에 나타난 예술의 군상」을 있는, 예술과 문학을 연결하여 학술과 교양을 겸한 저술이 곧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일은 미술사나 음악사에서 하기 쉽지 않으므로,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분야라 하겠다. 문일평이 전쟁과 문학의 연결을 시도한 「전쟁문학」 역시 심화되어야 할 주제다. 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현장론적 연구와 함께 관련한 시문을 두루 찾아내어 문학에 의한 전쟁의 기억이 어떻게 전승되는지 살피는 일이 즐거운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의 문학사와 생활사는 방대한 규모의 야사 잡록과 함께 문집이나 선집에

125)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전공 복합학문시대 한문학연구의 역할」(『대동한문학』 31집, 2009)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실려 있는 한문학 작품과 연결될 때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다. 아름다운 시문이 있는 의복의 문화사, 음식의 문화사, 주거공간의 문화사, 가족의 문화사, 여행의 문화사 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sup>126)</sup>

---

126) 강명관의 『조선풍속사』(푸른역사, 2010)와 『조선의 뒷골목 풍경』(푸른역사, 2003) 등이 의식주를 포함한 생활의 문화사라 할 수 있다. 필자의 『부부』(문화동네, 2011)는 부부생활의 문화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서 이지만 심경호의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이가서, 2007)는 여행의 문화사와 관련이 있다.